



시론

이해를 뛰어넘어 인정하십시오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밋 롬니(Mitt Romney) 후보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이 각각 전국 유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연설을 통해 또한 미디어를 동원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 흡집 내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부동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삼파전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와 부족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대방에게 치명타가 될 어떤 결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결점을 보완해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나니 인생을 조금 더 살아 많은 경험을 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따지고, 사실을 파헤치며 밤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생애를 통해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을 드러내며 나의 경험과 실력을 동원해서 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어느새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의외로 많은 손이 나의 인생을 잡아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시시오.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공화와 자비를 바탕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품어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남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법들도 많습니다. 알래스카(Alaska)에서는 곰을 총으로 쏘 수 있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잠자는 곰을 깨우면 불법입니다. 미시간(Michigan)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고,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서는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하면 불법이고, 애리조나(Arizona)에서는 선인장을 함부로 잘라가지만 지역 25년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람과 문화의 차이를 다 이해해 보겠다고 하면 웃으며 살아갈 인생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작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큰 가족입니다. 교우들이 지도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때 지도자는 교우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일지라도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의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어 장점을 인정해주고,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정은 상대방에게 주는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전하면서 10월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내 복음서’ 파문... “선동적 가면무도회” 불과 복음주의 진영, “예수 관련 여러 이설의 하나”, “대꾸할 가치 없다”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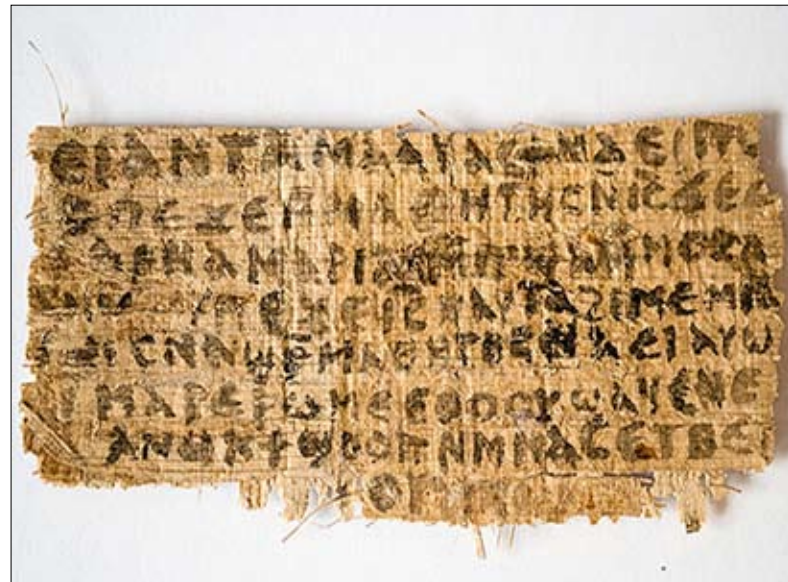
2003년 출간된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장편 “다빈치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추리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예수가 결혼해 자식이 있었다는 도발적 설정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았다. 당장 로마교황청은 책 내용이 사기자서 허위라며 비난했고,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되자 관람을 금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황청,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 신자가 불편해 할 만한 문건이 또 나왔다. 이번엔 넘치는 상상력으로 무장한 소설가가 아니라 엄밀한 사실의 체계(?)를 추구하는 미국 하버드대 신학자에 의해서다. 미 언론은 하버드대

킹 교수가 ‘예수의 아내서’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 파편은 가로, 세로 8X4cm 크기다. 그리스 문자를 사용한 고대 이집트 남부 언어인 콥트어로 쓰였다. 앞면에 여덟 줄 정도가 부분적으로 판독 가능하고, 뒷면은 단어 몇 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정확한 상태다. 문서는 대략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킹 교수는 이 문서가 예수의 대화 일부를 기록한 것으로, 이 대화에서 예수의 사도들이 마리아가 사도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하자 예수는 “그녀는 나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킹 교수는 “기독교는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신앙과 진리, 교리, 도덕적 신념들을 세속주의적 가치들로 대체하려는 영지주의적 획책”

로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믿을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서가 예수가 결혼했는지 ‘증명’해주지는 않는다고 단정을 유보했다.

킹 교수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며 “예수가 숨지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나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수의 결혼 여부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 조각은 익명의 민간인 수집가가 소장한 것으로 이 수집가는 킹 교수에게 문서를 해독, 분석해달라고 맡겼다.

이 문서가 발굴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콥트어가 사용됐고 건조한 기후로 고대 파피루스의 보존에 유리한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킹 교수는 밝혔다.

특히 문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파피루스와 글씨의 상태, 잉크가 흡수된 화학적 방식, 어휘 등을 분석한 결과 고대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킹 교수는 설명했다.

했다.

그러나 향후 잉크 화학성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서 진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킹 교수는 덧붙였다.

따라서 킹 교수는 “다른 것 몰라도 ‘아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미 예수가 결혼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발견을 댄 브라운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받아들이지 말라”며 예수 결혼 기정사실을 경계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은 그다지 ‘예수의 결혼설’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폴리신학교의 그린(Joel B. Green) 신학석경해석학 교수는 “오래전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의 하나로 보인다”며 “문서의 진위와 관계없이 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획도 없기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복음주의 진영은 “예수와 관련한 여러 이설의 하나일 뿐”이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

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든·코넬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셴 맥도노우(Sean McDonough) 역시 “성경에 대한 건전한 역사적 사고를 가로막는 연속적인 선동주의적 헤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하버드 킹 교수 본인이 “이 문서가 예수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언론은 언론의 특성상 “역사적 문서에 따르면, 예수는 아내가 있었다”고 보도하게 된다고 설명해준다.

컴퓨터 문서 전문가 크리스천 아스캐랜드(Dr. Christian Askeland) 또한 동 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거의 위조에 가깝다

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탄소측정법을 통해 연대성 측정을 한다하더라도, 파피루스에 쓰여진 잉크가 파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 문서가 진짜 문서로 판명된다하더라도, 복음주의 진영은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바로 역사적, 교회적 정경인 4복음서에서 예수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 복음서는 예수는 홀로 사셨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발견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침례신학교 몰러 총장은 그러나 이러한 과장을 일으킨 배후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문서를 발견한 킹 교수가 본인 자신도 스스로 “어떠한 동요나 도발적인 의심을 바라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발견한 문서의 이름을 ‘예수의 아내 복음서(The Gospel of Jesus’s Wife?)’라고 명명했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소요 배후에는 바로 정통적 기독교 신앙과 진리, 교리, 도덕적 신념들을 세속주의적 가치들로 대체하려는 영지주의적 획책이 숨어 있다고 몰러 총장은 해석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iskoreanstudies@gmail.com

완벽한 리더는 없다...지속적 노력할 때만 가능!

리더십저널, 론 에드몬드슨 목사의 ‘위험한 리더십’ 특징 소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리더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분의 제자를 키웠을 때 완벽한 리더십을 보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리더십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리더십을 본받고자 애를 쓰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는 각자의 리더십에 있어 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점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약점이 굳어져



조직 내 투명성과 정직의 분위기 조성 질문통해 이해도 점진, 갈등은 꼭 해결 권한 위임으로 개인 능력 확대

그것이 개인의 리더십 특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리더들은 모두 각자의 리더십 특징을 갖고 있다. 그 특징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특징이 만약 조직을 무너뜨릴 만큼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론 에드몬드슨 목사는 몇 가지의 가장 위험한 리더십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리더의 성공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의 리더 유형들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1.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

리더가 조직 내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리더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아주 건강하

다는 조직에서도 리더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조직 내에 투명성과 정직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리더는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의 의견이라 단정 짓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

2.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

대부분의 리더는 자신이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리더 자신에게 분명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 할 거라 가정한다. 그러나 보통 리더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지는 않다. 좋은 리더는 많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 계속해서 갈등을 피하려는 리더
결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조직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간과하고 무

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조직 내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4.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체하는 리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리더를 열심히 돕겠다는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 교만한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좋은 리더는 더 나은 결정을 위해 사람들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5.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리더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건강한 위임은 팀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도 포함한다. 리더가 계속해서 통제권을 쥐려고 하면 조직은 팀의 능력보다는 리더 개인의 능력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미국 국가적 강점은 ‘신앙유산’

〈1면에서 계속〉
그런데 세속주의의 도전은 건국자들의 신앙을 잠먹고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획책하고 있고, 어느새 미국 사회는 점점 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개탄한다. 결론으로, 아이키만은 미국의 부

흥은 가능하다고 바라본다. 역사학자답게 18세기 세속국가로 무섭게 돌진하던 영국을 다시 기독교화시킨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과 윌리엄 월버포스의 반노예제 캠페인 성공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 역시 대학생들과 전문인들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아가려는 노력들이, 특히 칼빈주의적 신앙운동의 확산(Young, Restless, and Reformed)을 포함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아이키만의 책은 중국 경제학자 자오 시아오(Zhao Xiao)가 바라본 미국 사회의 독특성으로 귀결된다. “미국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국가적 강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유산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은진 목사의

바이블 시사칼럼

(라스베가스연합감리교회)

‘치유의 오솔길?’

한국에 치유의 숲길이라고 한다. 원시상태의 자연 숲길을 부부가 같이 걷는다든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혼자 온 사람은 홀로 산책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다. 울창한 숲속을 걸으면서 삼림욕을 하게 되는데 숲이 만들어내는 피톤치드를 직접마시기나 피부에 접촉시켜 환경성 질환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 효과가 숲속을 산책하는 그때뿐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잠시 아픈 상처를 맑은 공기로 씻어내고, 바람소리 새소리 들으며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겠다. 아니 오랜 시간동안 숲속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치유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치유의 생활을 마친 그 다음 그는 전에 자신을 병들게 하였던 변함없는 그 세상에 내려가 살아야 한다. 비록 전보다는 새로운 각으로 조심하면서 살아보지만, 산에서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쑤시기 시작한다. 힐링의 숲속에서 온전히 갈아 앉았던 마음도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병이 다시 도지고, 옛 나쁜 습관이 다시 도져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을 양산하고 또 유혹이 춤추는 세상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이겠다.

남자는 다 도둑놈인가라

한국 현대불교의 거목이라 하는 성철이 계셨는데 (1912-1993) 그 스님의 친필도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는데 최근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회고록을 책으로 내었다고 한다. 딸이지만 아버지라고 불려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인 성철 스님께 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 “남자는 다 도둑놈인가라, 그러나 부모 말고는 가까이 말그라.”

요즈음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큰 골치다. 사실 내가 한국 뉴스만 봐서 그런지 이런 도둑놈들이 한국에만 몰려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 친 팔까지 범하고 또는 죽이고 토막을 내기까지 한다. 이들이 재수 없이 붙잡혀서는 형무소에 다녀온다. 23년, 45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형을 치르고 나와서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고 만다. 그 후 안방 드나들듯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별 따기를 즐긴다. 그래서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있다. 형무소의 감방생활이 저들의 치유의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치유 이후의 희망찬 삶

그런데 성경은 치유 이전에 예방을 말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 치유 이후의 건강하고 희망찬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 어느 소매치기가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씩을 끊어 나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검지를 자르고 마지막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제는 왼손이 자신도 모르게 장바구니 속의 돈지갑을 열고 지퍼를 꺼내 들더라는 것이다. 결단을 할까 손가락까지 잘라냈지만 치유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1, 2).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지혜로 삼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갈 때에 있어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떠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 하게도 기록한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롬3:10).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악인의 죄를 좇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있으며,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회개의 길이 치유의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숨길 수 없다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는 다 로맨스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회개함으로 시작된다 하겠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 정신병, 모든 범죄, 등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치유 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진행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깨닫게 하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재범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읽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지혜를 얻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며 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삶에 임한다 하여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 연단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더욱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 있어 치유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길 뿐이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신 좁은 그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게 되면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숲속의 오솔길을 걷는 것도 우리가 삶의 생기를 얻는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회개의 길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서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의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의 기쁨을 맛보며 거듭난 자녀로서 보람되고 복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찾게 될 것이다.

부흥성회 및 위임예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위하여 초청합니다.

- 은혜와 평강교회 박덕근 목사 외 교우일동 -

주제 :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24:5)

일시 : 2012년 10월 5일 (금) - 7일 (주일)



10월 5일 (금) 오후 8시
10월 6일 (토) 오전 6시, 오후 8시
10월 7일 (주) 오전 11시 15분

강사 : 김상덕 목사

* LA 복음 장로교회 담임
* 캄보디아 국제신학교 이사장
* 전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덕근 목사 위임예식

일시 : 2012년 10월 7일 (주일) 오후 5:00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담임
* 풀러 신학대학원 (D.Min)
* 리버티 신학대학원 (Th.M)
*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M.Div)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7-8)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은혜와평강교회
GRACE & PEACE CHURCH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818-894-9266(교회) 818-370-0146(목사관) WWW.gnpchurch.org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예수님, 그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2003년에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후손을 남겼으며 교회는 이 사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폐해왔다는 주

장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면서, 44개국에서 6천만권이 팔리는 슈퍼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이 '나의 아내'를 언급했다는 4세기 경 콥트어(고대 이집트어)로 쓰여진 명함 크기의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문서의 진위와 실증적 가치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한 하버드 대학 교수 캐런 킹은 "이 문서 조각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가 '실제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윈스터 대학 콥틱학 교

수 슈테판 엠벨과 함부르크 대학 파피루스 연구자 에일린 수치우는 이 문서 파편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진본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부터 수세기가 경과된 후 쓰여졌고, 또한 이단으로 정죄된 특정 종파가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담기 위해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가치는 없습니다.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는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사람들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 추측, 통제 불능의 소문이 더해지고, 그 위에 토착 종교와 철학, 점성술까지 합해져서, 예수님에 관한 헛된 주장들은 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다양

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靈知主義者)들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다는 비밀 지식을 계시를 통해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만 가진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랑했고, 그것을 3,4세기에 여러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발견될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했고, 댄 브라운은 이런 영지주의적 가설에 근거하여 '다빈치 코드'를 써내려갔습니다. 2006년에 공개되었던 '유다 복음' 때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divinity)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 결혼설'에 또 다시 열광하겠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또

다른 무모한 시도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 주장은 지난 2천 년간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듯한 자료와 증거를 내밀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붙들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죽음조차 정복하신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윤정용 목사
(템피장로교회)



오늘 본문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쏠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은 대단하다. 중요하다.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너희들은 소금처럼 이 땅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내가 그 일들을 하게 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 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자 축복의 대명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이란 언약과 밀접한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좋은 삶든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겠다, 늘 유효하다, 약속을 다 이루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소금언약을 통한 소금 의식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의식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너희는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특권과 자부심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의도로 예

수님이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소금이면, 유대인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소금이야기를 통해

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 맛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귀하고, 특별하고, 중요하고, 의미있다 하더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쓸모없게 내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금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끝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으로 있지 말고 짭짤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짭짤을 내라는 것은 올바르게, 착하게, 덕스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독교를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짭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짭짤은 자신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서 소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짭짤을 내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짭짤을 내면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아닌 자도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소금 맛, 즉 짭짤을 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소금이 아닌 자들이 소금이 되어지고 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핵심진리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구제로도 스스로 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소금 맛, 짭짤을 내게 하여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란 소금으로 존재하는데서 짭짤이 나도록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고 싱거우면 내 뱀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못내는 소금을 그냥 내 뱀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맛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사람들은 피하지만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소금의 짭짤을 내고 산다는 것은 은혜 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은혜 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에 만족하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경력과 경험에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과거의 좋은 기억과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갑시다. 만일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소금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소금됨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중요합니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짭짤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직분중심이 아니라 사명중심, 영향력 중심으로 살아야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금으로서 만족하고 살라고 하더냐?” 짭짤을 내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아멘)

소금맛, 은혜 맛
누가복음14:34-35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 전 해병대 부 사령관, 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2차 미주 추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력

- 1964
- 1966/1-68/1
- 1970/10
- 1984/8-86/1
- 1990/1-91/1
- 1991/1-93/12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국민대학교 교수
- 국내외 3800여회 성회 인도

해군 사관학교 18기 졸업, 해병소위 임관
월남전 참전(해병 청봉부대)
월남 짜빈동 작전지휘 (중위)
전 중대원 일제급 특진
(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창조)
충무무공훈장, 월남 연승 무공훈장 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표장
진해 가덕도 침투간첩 소탕작전 수행
해병 2사단 5연대장(대령)
해병 제2훈련 단장(준장)
해병대 부사령관 (소장)

장 사 : 김기홍 장로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는 (02)842-3313로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간증성회문의처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 역
10/18(목) ~ 10/21(주일)	시온연합감리 교회	구진모	CA
10/25(목) ~ 10/28(주일)	주님의 빛 교회	주혁로	CA
11/ 2(금) ~ 11/ 4(주일)	갈릴리 은혜 교회	구본철	CA
11/ 8(목) ~ 11/11(주일)	갈보리 선교 교회	심상은	CA
11/15(목) ~ 11/18(주일)	애나하임 광로 교회	신운석	CA
11/22(목) ~ 11/25(주일)	호산나 교회	라계업	CA
11/30(금) ~ 12/ 2(주일)	타이드 워터 한인 침례 교회	조낙현	VA
12/ 7(금) ~ 12/ 9(주일)	풍성한 교회	윤병남	MD



현대는 영상시대 이다.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날마다 이슬람권이 주도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Nakoula Basseley Nakoula 라는 사람이 만든 아마추어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14분짜리 동영상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innocence를 순진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innocence라는 말은 또한 ‘무지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슬림의 무지함’이 된다. 아랍국가들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날법

이 영화는 할리우드 한 극장에서 10명의 관객을 가지고 단 한번 상영되었고 더 이상 상영되지 않은 영화 아닌 영화이다. 누가 보아도 원래의 대사를 지우고 그 위에 다른 대사를 더빙한 조잡한 조작을 한 수준이하의 영상이다. 미국에서는 극우주의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제작이나 기술면에서도 수준이 낮은 최악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엉터리 영화가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순전히 아랍권의 공로이다. 아랍권에서는 이 영화가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공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화적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시대가 영상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도 유튜브와 인터넷의 공급력 때문이다. 이것은 영상시대의 영상문화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랍권 데모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런 획일적인 데모와 폭발적인 반응이 가능한 이유 역시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 아직도 아랍은 구전 문화권인데 영상문화가 가져오는 폭발적인 충격으로 구전 문화권의 특징인 응집력이 종교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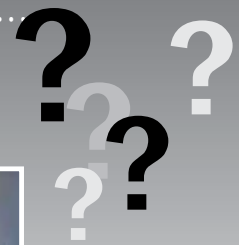
첫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반응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영상에도 무슬림의 공격을 받아 죽은 여인의 목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목이 풍자하는 것처럼 사실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극우주의자들이 행하는 코란을 불태우는 일들로 무

하는 영화들이나 보도들을 보면 이슬람권내의 성도들의 현실은 이 동영상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은 앞에 나오는 핍박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모하메드에 대한 수준이하의 공격으로 다 지워버렸다. 또한 성도들에게 또 다른 핍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영화의 제작자가 진실한 기독교인은 아닌 성 싶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염려하여 만든 것도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지혜롭게 영화를 만들고, 지혜롭게 메시지를 담고, 지혜롭게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인 행태가 사실은 수많은 ‘정말로 죄없는 innocent’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넷째로, 무슬림 선교에 대한 대책은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미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의 전략을 다 파악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으로 무슬림 포교를 기독교에게 배운 기독교의 전략으로 반기독교적인 포교를 하고 있다. 무슬림의 전통적인 전략은 매우 폭력적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현재 담임목사로 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오랜만에 설교하면 기쁨으로 설교했는데 부목사 때와는 담임목사가 되어 계속되는 설교사역을 하다 보니 힘이 들고 설교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주말은 거의 주일 새벽까지 몸부림치며 주일설교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으며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A: 설교는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고민이요 숙제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장로님들의 인격만큼 성숙해지고 평신도들의 사역만큼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할 기회가 적어 가끔 설교해서 히트를 치면 순식간에 교회의 스타가 되고 그러면 본인도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어 매주 설교하게 되면 잘하는 것은 기본이요 한 주라도 설교의 파이가 떨어지면 당장 교인들 전체의 가슴거리 근심거리 기도제목이 되고 맙니다. 부목사시절에는 설교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 정작 담임목회자가 되면서 매주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설교를 계속하다보니 비축해두었던 설교 콘텐츠가 1년도 못가서 다 바닥이 나버리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년 넘게 같은 교회에서 계속 은혜를 끼치고 교회 성장시키면서 목회하신 분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 선배로서 몇 가지 제 경험을 통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준비는 미리...통찰력과 영성 뒤따라야

첫째, 설교를 늘 주일새벽까지 준비하는 괴로움을 탈피하고 즐거움으로 여유있게 설교를 하려면 먼저 설교 준비하는 습성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좀 소개한다면 저는 과거 목회하면서 늘 바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어서야 설교를 준비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조금급하고 주일새벽까지 설교준비하는 일이 많아 아내에게도 잔소리를 듣고 주일아침은 늘 피곤하고 영적인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특히 화요일을 설교 준비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일찍 설교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초반인 화요일에 설교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토요일 아침이면 설교가 거의 완성이 되고 토요일 오후는 주로 예화를 찾고 설교원고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휘력을 매끈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제 집은 타운하우스인데 집 주변을 한 시간 걸으면서 Walking Prayer(걷는 기도)를 합니다. 내일 주일설교와 예배를 위해 성령의 기쁨부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설교나 묵회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Insight(통찰력), 둘째는 영성(Spiritual power). 설교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Insight(인사이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묵상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나 영성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설교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6권의 책을 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책을 다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성이 풍성해야 그것을 초월하는 영성도 빛나는 법입니다. 묵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감탄을 넘어서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슬림의 순진함’동영상에 대한 반응의 순진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도 하다.

이 영화는 온통 무슬림들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동영상의 시작은 이집트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믿는 가정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들의 방화와 약탈을 수수방관하는 현지경찰과 방화를 주도하는 이슬람 지도자도 등장한다. 장면이 바뀌고 이슬람의 예언자로 추앙 받는 무하마드를 아동학대, 혼외정사 옹호자, 폭군으로 묘사했다. 영화는 모하메드를 형상화 하는 것조차 금지한 무슬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슬람권은 이 사건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심본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무슬림들은 분노했고, 이집트TV에서 뉴스로 다루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권에서는 미국과 제작에 참여했다고 믿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AP에서 보도한 유대인 관련은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이란은 시온주의자의 악행이라고 계속 매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모하메드를 비하하는 카툰이 신문에 실리면서 반미/반서구 데모는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아랍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좋은 먹이감이 된 셈이다.

장한 인기를 얻은 영화로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동영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반미 반서방 데모 이후였다. 역설적으로 데모를 하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동영상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셈이 되었다.

아마도 데모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동영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랍권 나라에서는 구글 등의 서치엔진들이 이 동영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슬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 이상의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그 결과 전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데모의 여파로 미대사관이 공격당하고, 리비아에 주재하던 미국대사는 안전지대로 피하는 도중에 테러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다. 미국은 특수부대 50여명을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투입했다. 또한 파키스탄정부는 제작자를 살해하는 일을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기까지 했다. 이 동영상 사건을 통해서 아랍권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하고 결집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세계는 이 사건의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를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슬림들의 마음을 열 수는 없다. 십자군 시대처럼 종교전쟁하여 힘으로 결판내자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으로 무슬림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주님은 겉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강력한 사랑으로 강력한 인간들의 마음을 여셨다.

둘째로, 무슬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과 이슬람권에 사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다. 이번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고대 기독교의 형태인 애굽의 콥틱 교회 신자라는 말에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콥틱교회가 이집트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어렵고 핍박이 심한데 이 사건의 후폭풍을 당연히 우려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한다.

셋째로, 무슬림의 위한 전도나 사역의 전략이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슬람사회의 어두움을 폭로

고 침략적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같은 방법으로 선교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태도가 더 절실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무슬림이 모하메드 믿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하메드를 비하하고, 욕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모멸감을 주셨을까? 아닐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예수님 시대에도 도시마다 수호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의 신전들을 뒤엎지 않으셨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사역과 행동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한두가지 뿐이겠는가?

‘무슬림의 순진함’이란 영화에 대한 무슬림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무지함innocence을 본다. 그러나 그런 무지함이 어찌 그들의 모습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를 차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지함’은 없는가?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이끼원

성경성구대전

(전7권)

정가 \$758.00

save 69%

세일가격 \$235.00

+Tax

1권:다~남파스
2권:다~로
3권:로~사
4권:사~마
5권:마~골
6권:골~행
7권:행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메트 (LAMET)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부지방의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안남산맥의 서쪽에 거주하는 라오통(Lao Thung, 산허리의 라오스인)족과 관련돼 있다. 라오통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 정도이나 라메트족은 약 15,000명 정도 된다. 라오스 북서지방의 외딴 산악지대에 산재해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이들은 필수품을 구하기

위하여 돈벌이 되는 일을 구하려 저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로 여기기도 한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에 속하는 라메트어를 사용하며, 이 라메트어는 팔라우(Palaung)어와 와(Wa)어와 관련을 갖는다. 대부분의 남자 성인들은 타이유안(Tai

Yuan)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라메트족 마을이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고립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습은 거의 없다. 각 가정들은 대략 6-7명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 각 가족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돼 있다. 가정의 대표 남자 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가옥은 나무나 대나무 더미로 지어지며 부엌이 집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중심에 남성들의 공공가옥(common house)이나 모임장소가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족

과 함께 살며 신부의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여 신랑이 신부집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끝마치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하거나 신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램(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물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만 하고 기존의 램(l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을의 램

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농업과 사냥에 종사한다. 화전법을 사용하며 주된 농작물은 쌀이다. 라오족 및 타이족과 연장, 옷, 도자기 등과 같은 물건들을 서로 매매하기도 한다.

신앙
기본적으로 라메트족은 정령숭배자들이다. 라메트족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피(phi)”라고 부른다. 이들은 피(phi)가 어디에나 살고 있으며 선과 악 모두를 일러나게 한다고 믿는다. 또한 라메트족은 조상숭배자이다. 조상의 영혼들이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메트족에게 조상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축전과 마을의식을 즐

아한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쉼미아(xemia)가 이러한 의식과 축전 등을 지휘하며 마을 영혼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칠고 고립됐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지역은 또한 여러 내전과 국제전의 전장터가 되기도 했다. 이 전쟁들은 라메트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들은 진리와 내적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메트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메트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인터넷 뉴스Internet News

기독교기업 칩필레, 동성애자 반발에 백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보수주의적 기업 운영으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온 미국의 2대 치킨 패스트푸드 전문 기업인 칩필레가 반(反) 동성애 단체 후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칩필레는 현지 언론에 성명을 보내 “앞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정부와 정치권에 맡기겠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20일 WSB 방송이 전했다. 앞서 시카고 소재 성소수자 권익보호단체인 ‘민권어젠다’는 18일 칩필레가 반동성애 단체들에 후원금을 주지 않기로 한 내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7월 칩필레의 맨 캐시 회장의 전 통결혼 지지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시의회와 람 이 매뉴얼 시장이 칩필레의 시카고 입점 승인을 보류하고 칩필레를 상대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공화당은 ‘칩필레 사먹기’ 운동을 펼치며 보수세력 결집을 시도했고,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애자 키스의 날’을 선포해 전국 칩필레 매장 앞에서 키스 시위로 맞불을 냈다.

칩필레의 이번 성명은 민권어젠다 측 주장에 대한 애틀랜타 지역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반동성애 단체와의 절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키스탄 수도서 반 이슬람영화 시위 25명 부상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0일 반(反) 이슬람 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 최소한 25명이 부상했다. 대학생 1천여 명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위를 벌이며 서방 대사관들이

롬니, ‘저소득층 무시발언 논란’ 일파만 파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갑부 후원자들 앞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듣기 싫어할’ 말을 했다가 들롱나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롬니는 17일 좌파성향 잡지 ‘마더 존스’ 홈페이지에 실린 선거자금 모집행사 동영상에서 “47%의 미국인들은 정부에 의존하면서도 피해자로 생각한다”며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음식, 집 등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롬니는 원래 비공개인 이 행사에서 또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해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상대 오바마 진영에서 “중산층 현실을 모른다”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롬니 후보는 17일 밤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폭격있게 표현된 것이 아니었다.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대답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불을 끄는데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설화는 롬니를 자애심 많은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던 최근의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 한 것이지만 미국민 절반가량을 ‘정부 의존형 인간’으로 표현한 ‘비하 발언’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1인당 5만달러씩 기부한 거부들이었다.

텍사스 주, 남성 교사가 여학생 체벌로 말썽

미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천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의 매’로 표현되는 엄한 학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체벌이 금지된 주는 다른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란서 이슬람 중자’ 프랑스잡지 반대시위

이란 테헤란에서도 20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풍자만화를 실은 프랑스의 한 주간잡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란 대학생과 일부 성직자들은 이날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프랑스에 죽음을,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시위했다고 반관영 파르스 뉴스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100명 가까이 달했으며 일부는 프랑스와 미국의 국기를 불에 태웠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프랑스 대사관을 철

왕따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등 못된 짓을 하다 걸리면 일단 학교 내 보호소에 격리돼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이들 문제 학생은 대부분 정학을 받고 비행 사실이 학적부에 기록돼 진학 때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 고교생의 중퇴 비율이 25%에 이르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지아 주의 경우 학생이 교실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면 1회 적발 시 부모 소환, 2회 시 특별 교육, 3회 시 정학 등 중징계를 받는다. 애틀랜타의 폴턴 카운티 교육청은 9월 새 학기에 발표한 공립학교 교칙을 통해 식당 등 학교 내 시설로 학생들을 인출하는 담임교사를 앞질러 지나치는 학생은 ‘침묵의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점심시간에 급우들과 떨어져 식사하고 혼자서 식사를 해도 주위에 말을 걸어서 안된다.

물론 교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최근 텍사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남자 교감이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ABC 방송에 따르면 포트워스의 스프링타운 고교의 여학생인 테일러 산토스는 교사에게 제출할 과제물을 급우에게 보여준 사실이 드러나 ‘2일간 교내 격리’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틀간 수업에 빠지면 학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유기정학 대신 곤장을 맞겠다고 요청했다. 학교에 소환된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일러는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고 그의 과제물을 베긴 다른 여학생은 경찰 입회하에 매를 맞았다.

문제는 두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감이 남성이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텍사스 주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남자교사가, 여학생은 여자교사가 곤장을 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 불려간 학부모들은 “교칙을 어기고 남자 교사가 체벌을 가해 아이들의 엉덩이가 벌겋게 달아올랐고 멍도 생겼다”며 항의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체벌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체벌 시 여교사가 입회한 사실을 강조했으나 학부모의 제보를 받은 언론이 ‘이성 체벌’ 문제를 조명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가운데 19개 주가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주는 조지아와 텍사스 등 기독교세가 강한 남부에 집중돼 있다. 이번 소동을 두고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가 체벌 전에 교칙을 잘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체벌 자체에 시비를 거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ABC 방송은 “엄마는 남자 교감이 불기찍을 때린 것에 화났다”는 경찰 소문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담임 목사 청빙

덴버 한인 장로 교회에서는 양 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뚜렷한 신앙 비전과 겸손으로 목양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나 부목사 경험이있는 분.
3.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보써 35세 ~ 50세 초반

제출 서류

1. 본인과 사모 소개서(최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문과 사역 비전 및 계획서
3. 최근 셀교(6개월 내) 동영상(web address) 이나 CD 2회본
4. 목사 추천서(2인 이상)
5. 학위 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및 안수 증명서

참고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제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제출처

우편 혹은 e-mail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 교회: (303)422-6950 | info@kpcod.org
덴버 한인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병욱 장로 (303)422-8777

제출 기한

2012년 10월 31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자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신청 자격 |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장학금액 | Scholarship Amount

월인당 \$1,000 per person

신청마감 | Application Deadline

2012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2

신청 서류 |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할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서류 보내실곳 |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문의사항 |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평신도 선교운동본부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T/269-372-4262 / hmrhiew@sbcglobal.net

투고칼럼

김정한 목사
(SON Ministry 대표)



동성애? 이제는 칼을 뽑아들어야 할 때

동성애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사회적 현상인가? 문화적 현상인가? 정치적 이슈인가? 소수 인권의 문제인가? 이런 관점들은 모두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이다. 동성애를 보는 관점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영적인 관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관점이다. 미국의 대선이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일종의 전쟁이지만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 이슈는 분명히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미국의 역사의 흐름이 로마의 역사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많다. 대역사가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1737-1794)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제국의 멸망에 관해 다 음 다섯 가지를 말하였다. 그가 쓴 '로마제국의 쇠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서, 기본은 로마제국의 멸망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가정의 붕괴-이혼의 급증 2)세금 증액 3)만족할 줄 모르는 쾌락의 열망 4)지속불가능한 군사력 증강 5)종교의 부패. 현재 미국의 상황이 앞서 열거한 로마패망의 원인 다섯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한다.

시니어조선 5월 13일자 기사에는 "미국내 동성애자는 약 400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1.7%에 불과한 소수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메이저리그'급으로 가파르게 부상하고 있다. 겉으로 여론조사가 따르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1996년 27%였지만 15년 만인 2011년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18-35세의 젊은 층에선 70%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정도다"라고 하였다.

로마패망의 원인 다섯 가지와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적전쟁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단이 집요하게 미국을 무너트리기 위한 영적공격을 하는 것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동성애 커플이 2000년도에는 35만 8390쌍에서 2009년도에는 64만 6464쌍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사단은 미국의 가정을 하나님 이 정하신 가정의 의미를 깨뜨리

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이다.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세대, 차세대들이다. 현재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층에서 70%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정도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사단은 이미 젊은 층을 인권이란 문제로 보게 하며 상당한 수준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 젊은 층의 부모들은 케네디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금지시키고 히피문화를 꽃피우게 한 시대에 컸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자.

미국에서 히피문화가 시작된 곳이 전 세계의 문화적 소용돌이의 시발점이 되었던 샌프란시스코의 Haight Ashbury 라는 곳으로 현재 동성애자들의 동네로 유명한 카스트로(castro)이고 "히피문화"가 발생한 곳이 바로 옆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영적인 함축의 진원지가 히피문화가 시작된 곳과 동성애자들의 유명한 동네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히피문화를 통하여 연결되어 일어난 것이 성의 자유에 대한 문화였다. 이 성문화에 대하여는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겠다.

사단의 동성애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준비되어오고 있었다. 현재도 전체 인구의 1.7%

뿐인 동성애자들이 정치를 이용하여 법을 바꾸며 가정을 허물며 차세대를 허물려는 영적공격을 집요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세금증액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미국은 물질문명의 첨단에 서면서 기독교정신을 잊어버리고 맘모니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경제중심지로 되면서 맘모니즘의 노예가 되어갔다.

세 번째 만족할 줄 모르는 쾌락의 열망에서는 헐리웃이 그 쾌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의 싸움이 영화산업 통하여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쾌락주의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약과 성적인 문란 등이 영화산업 뒤에 숨어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1985년에 있게 되는데 영화배우 Rock Hudson이 AIDS로 죽는 사건이었다. 동성애로 인하여 생기는 AIDS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의 죽음은 헐리웃의 성적문란과 음란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았다. 군사력의 증강에서는 동성애와의 특별한 연결이 없기에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의 패망원인과 미국의 유사한 점을 말한다면 종교의 부패이다.

현재 미주 개신교 교단중 동성애를 허락한 교단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장로교(PCUSA, 5/10 2011 총회통과), 연합그리스도교회(UCC), 미국복음주의루터교(ELCA), 미국성공회(EC) 등이다. 미국의 교회를 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의 주류교단들은 거의 100% 마이너스성향을 하고 있다. 대통령선서식 때에 성서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미국의 신앙의 전통적인 기초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들부터 이미 성서의 기초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보

이지 않는 것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어 갔다는 것이다.

AD476년도에 공식적인 역사가들이 말하는 로마의 멸망에 로마는 세대적으로 이어져가며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의 모습도 동성애와의 치열한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는 정치적 싸움 "투표의 싸움" 싸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싸움의 본질은 영적전쟁이다. 투표보다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싸움의 도구가 된다는 절대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동성애 싸움은 현재 세대적인 싸움으로 1950년에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보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두 세대가 지나오고 있다. 아직 겨우 전체인구의 1.7%, 약 400만 명이 동성애자로 미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집요한 미국의 패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패망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교이다. 아직은 세계선교의 1위 국가인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허물어야 하고 다문화세대를 허물고 교회들을 약화시키고 음란하고 타락한 동성애 문화를 확장시키고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동성애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직장, 이웃에,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사단은 절대 포기 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 이제는 이 치열한 영적전쟁에 기도의 칼을 뽑아들 때가 되었다.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독자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란다.

시리아, 아동인권유린 심각

[미션라이프] 18개월 간 계속되는 시리아 유혈사태로 인해 250만 명가량이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처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고문을 당했다는 아동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시리아에서 아동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요르단과 레바논의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지난 두 달 간 국경을 넘어온 시리아 난민이 1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기록적인 숫자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리아 유혈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1만7천-2만2천명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이 추산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25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직접 고문을 당했다는 아동의 증언이 잇따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난민캠프에서 만난 아동의 증언을 모든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시리아 아동의 이야기'(Un-told Atrocities: The Stories of Syria's Children)'를 펴냈다.

현재 시리아에서 민간인 살해와 폭력이 가장 심한 도시는 데라아(Dera'a)와 홈스(Homs) 지역이며 폭력은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 캠프에서 수집한 아동의 증언 대부분은 그 동안 유엔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보고된 권리침해 상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심야를 틈타 걸어서 국경을 넘는 아동들은 대학살 목적으로 인한 약탈, 야포증, 자기학대, 실어증세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난민캠프의 한 15세 소녀는 충격으로 인해 6.7세처럼 행동하는 정신적 퇴행 증세도 보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전세계에서 시리아 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과 함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에 대해 자행되는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2주간 전 세계에서 서명을 전개한 뒤 이를 모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서명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홈페이지(www.sc.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 오전 9:45 수신 2부예배 : 오전 11:45 평일 2부예배 : 오전 2:30 금요찬양예배 : 오후 7:30 www.thankingchurch.com Tel. (213)481-2779 /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os@thanking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전윤철 주일 1부예배 :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4부예배 : 오전 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6부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laosnews@kcc.net / www.laos.net Tel. (213)515-6881, Fax. (213)515-6882 691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일련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2: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2:30 수신 6부예배 : 오전 12: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Tel. (213)419-1900, (916)2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27 www.laosnews.org	나성영락교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8:30 수신 2부예배 : 오전 9:4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10 수신 5부예배 : 오후 12:30 수신 6부예배 :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8:30(토)) Tel. (213)439-7324, (916)213-5950-1088 1218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21 www.yongr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7:00(토) Tel. (213)439-7324, (916)213-5950-1088 1218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21 www.yongrak.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권경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7:00(토) Tel. (213)439-7324, (916)213-5950-1088 1218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21 www.yongrak.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os@thankingchurch.com	남가주리디아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sacra.org Tel. (714)315-8222, Fax. (714)315-8222 1941 S. Western Ave., L.A., CA 9002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714)779-7777, Fax. (714)779-7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701	다홍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 Tel. (213)719-2944, Fax. (213)719-2929 16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동문교회 담임목사 : 허태우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7:45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권영국 목사 “세계사역을 위하여 있는 우리교회” 주목회 : 오전 11:00(월-토) 금요예배 : 오전 8:00 Tel. (213)481-2779, (213)481-2782,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철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9: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6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8:30(토) Tel. (213)481-2779, (213)481-2782,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심현규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미중앙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경명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mjpeacechurch.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배달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일식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빈쿠버비밀리아교회 담임목사 : 임전택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새벽기도회 : 오전 7:30(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배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성경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세계미전 교회 담임목사 : 김명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인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일미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현종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imchurch.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3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임규서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온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wonhewhchurch.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진철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5부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inlandchurch.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진승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cdc.org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코너스문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www.konamun.org / www.konamunchurch.com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2부예배 : 오전 11:00 수신 4부예배 : 오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213)481-2779, Fax. (213)481-2782 164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함 후원교회들 찾아보다 ■ L.A.: Tel. (213)965-0009 Fax. (213)9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새로운 생명의 불꽃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7. 진화의 증거 빠진고리

지난 8월 15일자 H신문(LA)에 “퇴화된 인체기관들은 언제쯤 완전히 사라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림도 함께 실렸다.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인종차별적인 그림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그림이기도 하다. 사람이 진화되는 과정을 검은 색의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렸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본 크리스천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사에 적혀 있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할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KO되지는 않았지만 짐을 몇 대 맞은 셈이다.

진화를 기정사실화 한 이 신문 기사는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많은 퇴화기관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새끼발가락, 꼬리뼈, 맹장, 사낭나, 새끼발가락, 꼬리뼈, 남성의 젖꼭지, 귀를 움직이는 근육 등을 들고 있다. 이 밖에 고래나 비단뱀의 뒷다리뼈, 타조의 날개, 두더지의 눈, 동굴 속에 사는 가재의 눈 등을 열거하고 있다. 퇴화된 기관들이란 무엇이며 왜 과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1. 흔적기관(Vestigial Organ)이란?

흔적기관이란 말은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다. 조상들은 유용하게 사용하던 기능이었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퇴화되었지만 그 구조만은 아직도 남아 있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맹장(충수돌기)을 흔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역시 진화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아직 덜 진화된 초식동물들에서 맹장은 섬유소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의 맹장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진화하는 동안에 예전에 필요했던 맹장이 지금은 필요 없는 흔적기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사람은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채소

2. 흔적기관과 빠진고리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새로운 기관을 가진 생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이 증거를 화석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화석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석에는 과거 진화과정 중에 있었던 생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물화석을 중간화석(intermediate fossils) 혹은 빠진고리(missing link) 화석이라고 부른다. 만약 수십억 년의 진화가 사실이라면 역사 전 과정에서 진화의 과정이므로 화석 기록은 중간화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진화론의 대부분 다윈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화의 증거는 아직 제대로 완성된 기능을 갖지 않은 기관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가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불평한다. ‘우리가 진화의 증거로 빠진고리를 제시해도 창조론자들은 그 빠진고리 사이의 빠진고리들을 또 다시 제시하라고 한다.’ 마치 창조론자들이 진화 단계의 빠진고리 화석을 끝없이 제시하라고 역자를 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라고 말한다. 과학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DNA도 약 2%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이고 나머지 98%는 표현이 되지 않는 쓸모 없는 DNA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 때 98%의 DNA를 Junk DNA라 부르기도 했지만 역시 진화론에 바탕을 둔 미련한 생각이 드려났다. 아직 모든 부분의 기능이 밝혀지지지는 않았지만 생의학 관련 연구소들의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2%의 유전자가 아니라 98%의 아직 알지 못하는 기능에 쏠려 있다. 거기에는 각종 유전적인 질병 등에 관련되어 있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보물지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4. 진화는 속임수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한 때 유용했지만 지금은 쓸 데 없어진 흔적기관들이 사라지려면 수백

진정한 진화증거는 완성된 기능 갖지 않은 기관 가져야 중간모습 ≠ 진화증거... 진화론자들 중간화석 제시 못해



진화의 증거?

물고기와 새의 특성을 다 가졌다고 진화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화의 증거가 되려면 완전한 기능이 없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창1: 29). 따라서 사람은 풀의 주성분인 섬유소를 소화할 능력이 필요 없었다. 채소와 과일의 주성분인 녹말과 당분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면 충분하였다. 사람에게서 맹장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맹장이 소화도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화론이 극성을 부리던 때 사람의 몸에는 100가지가 넘는 흔적기관이 있었다. 진화론이 만든 역을 한 기관들이다. 그러나 과학 지식이 늘어지면서 거의 모든 기관들에 분명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흔적기관 운운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 앞에서 열거 된 흔적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기관들도 거의 대부분 이미 그 기능들이 밝혀져 있다.

3. 흔적기관의 의미와 실례

진화를 사실로 믿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화석에는 그런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아야 하지만 화석에서는 완전한 기능이 있는 것들만을 보여준다. 그런데 흔적기관들은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진화의 존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것이라도 진화의 증거로 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흔적기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흔적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들이 앞에서 언급된 기관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자들이 흔적기관이란

만 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들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영원처럼 긴 시간으로 미루거나 과학이 발달하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원인과 같은 시간은 없다. 고생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6억년 간의 지질시대는 단지 1년간의 노아홍수의 결과다.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석탄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을 적용하면 모두 다 같은 연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화석들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을 적용하면 역시 같은 연대가 나온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화석을 연대측정을 하지 않는다. 고생대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운운 하는 것은 연대를 측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화석의 나이를 진화론의 믿음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다. 과학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실험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석이 나 석탄을 방사성탄소법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흔적기관이나 빠진고리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완벽한 창조물들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40)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8)-순종의 리더십

한국 경영자 총 연회회가 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을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을 뽑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스펙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 바로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유명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담당 고위 관계자가 “학점이나 영어 점수,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열정적인 태도, 희생정신과 조직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좋은 성품이 강력한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익점수가 900점이 넘고 각종 다양한 스펙을 키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현대 청년들의 문제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강조한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자고하면 가장 늦게 나오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가장 늦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국 국민의 국민성 때문입니까?” 오랜 세월 교육해오면서 느낀 소감이라면서 말씀하시는 미국 교장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것은 국민성이 아니고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한국 가정교육의 문제가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사회 곳곳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나 질서, 법들을 무시하는 어른들로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성품보다는 성취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버릇없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원인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앞뒤로 잠만 자고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었더니 부모가 전화해서 “애가 학원속에서라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해 그러니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태도는 어떻게 성가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음세대의 국민성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댄 킨틀러 교수는 “가정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성공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이 사회 예절의 붕괴를 초래하여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약속과 질서를 알고 순응하는 태도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어원은 아라비아 명마를 길들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한 가운데 말들을 방목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명마를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왔습니다. 주인에게 명마를 보여 달라고 하면 주인은 내일 오전 11시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명마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주인에게 와서 명마를 보여 달라고 말하면 주인은 개울가 옆 사막 언덕 기슭에 매어 있는 수많은 말들을 보여주면서 2시간 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아래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지쳐 갔고, 언덕위에 있는 말들도 목이 타들어가 더위에 서있기조차 힘겨운 듯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백~” 하는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기둥에 매여져 있던 줄들이 풀리면 말들은 갈증을 풀기 위해 언덕 밑에 있는 개울가로 손쉽게 달려갔습니다. 말들이 냇가에 가까이 도착할 때쯤 주인이 다시 “백~백~”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말들은 부르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물을 뒤로 하고 머리를 돌려 주인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아라비아의 명마라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9:30(영아)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03)427-8265, Fax: (303)427-8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안교회: 오전 8:00 Tel: (970)228-0881, 977-7777 Fax: (970)228-0886 2880 Morris Ave., Lancaster, PA 1760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경문 주일예배: 오전 8:30(영아) 수요예배: 오전 10:30(영아) 수요예배: 오전 11:30(영아) 수요예배: 오후 8:00 Tel: (717)846-1615, Fax: (717)846-3586 1530 Woodbine Rd., Lewisburg, PA 17057	멜렐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전 8:15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안교회: 오전 8:00 대안교회: 오후 8:00(영아) Tel: (410)487-0286, Fax: (410)487-0283 218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대영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307)428-4879, Fax: (307)428-4887 2 Main St., Rapida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410)327-3448, 3282-0101, Fax: 327-3448 1900 Broadway Ave., Hunt, Lutherville, MD 21093	샬롯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704)428-0881, Fax: (704)428-0886 701 Scalestone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02)428-0181 8007 Kipling St., Arvada, CO 80006	시아폴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열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8:00(영아) 수요예배: 오전 8:30 Tel: (703)327-0281, Fax: (703)327-0286 4045 N. 10th St., Seattle, WA 98108	시카고에브론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312)734-8234, 8277, Fax: (312)734-8279 817 Schen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201)970-8048, 8048, Fax: (201)970-8048 805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307)344-8448, Fax: (307)344-8448 2222 Greenwood St., Anch, AK 99518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예배: 오전 8:00(영아)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01)517-5680, 5680, Fax: (301)517-5680 3418 Arden Ave., St. Francis, TX 7506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703)327-0281, Fax: (703)327-0286 701 Scalestone Road, Charlotte, NC 28209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54)334-8705, (254)334-8823 408 N. 8th St., Abilene, TX 7960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703)327-0281, Fax: (703)327-0286 4045 N. 10th St., Seattle, WA 9810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904)649-8738, Fax: (904)649-8738 10201 Robin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상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410)228-0881, Fax: (410)228-0886 218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대근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360)729-7004, Fax: (360)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형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253)327-0281, Fax: (253)327-0286 701 Scalestone Road, Charlotte, NC 2820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253)327-0281, Fax: (253)327-0286 701 Scalestone Road, Charlotte, NC 28209
렘마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8:30(영아) 수요예배: 오전 10:30(영아)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480)729-7004, Fax: (480)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진만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800)649-8738, Fax: (800)649-8738 10201 Robin Rd., Richmond, VA 2323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808)729-7004, Fax: (808)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303)729-7004, Fax: (303)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808)729-7004, Fax: (808)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수요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10: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12:00 Tel: (808)729-7004, Fax: (808)729-7004 2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제 8회 GIM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 성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교회연합(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GIM)이 주최하는 제 8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가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시96:3)라는 주제로 지난 22일과 23일, Iranian Christian Church(담임 Kamil Navai 목사)에서 25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도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는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중국, 이란, 라티노, 루마니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메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다민족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합심빌레이기도에 이어 8개국 선교보고(미국, 중국, 케냐, 루마니아, 한국, 이란, 에티오피아)에 이어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을 갖고 미국내 이반젤리컬교회의 여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대회는 William Crews 박사(Golden Gate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에서 민족대표들이 합심빌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Seminary President Emeritus)가 "Ultimate joy of the Christ-follower" 제목의 개회 메시지에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 하며 미국내 여러 민족교회들의 협력된 결속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음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 할 것"을 역설했다.

각 민족 선교보고에서는 이란교회의 무슬림TV방송선교, 이디오피아의 제자훈련선교, 케냐의 구제 고아선교, 중국(World Christian Restaurant ministries)의 레스토랑 선교, 미국(International Student Ministries)의 캠퍼스선교사역 등을 비롯한 각 민족들의 다각적인 선

교활동을 보고했다.

"Awakening to a New Hope"의 패널에서는 한국민족(Faith Kim)을 포함한 미국(Sam Earp) 중국(Thomas Wang), 루마니아(Laurian Lazarescu)의 신학자, 목회자, 전도사 등 각 민족 대표 8인이 참석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적각성을 위해 교회의 강단으로 오는 메시지와 성경공부에 있음을 함께 동감하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다민족교회의 연합과 협력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에티오피

아와 이란 선교보고를 통해 이슬람권의 압박으로부터 강력한 보호와 함께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슬람권 저지와 아프리카 북부의 관문인 선교를 위한 800명 복음전도사 훈련학교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여러 민족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란선교에서는 영상매체를 통한 이슬람권의 변화(Transform)를 지적하며 이란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한 연합과 협력선교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지 아이엘교회 담임)는 "금년에는 특히 다민족 1세와 2세들이 연합돼 GIM 주최의 3개 대회인 올네이션스 연합기도컨퍼런스(연 2회), 글로벌 다민족콘서트, 글로벌 다민족국제선교대회를 갖게 됐다"면서 "차세대 선교도 함께 인식하며 1세와 2세의 만남과 협력의 장으로 미국내의 다민족의 교단과 세대들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갈보리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허상회목사

갈보리장로교회 설립19주년기념 부흥성회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웅철 목사)는 교회설립 19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허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부흥성회는 시간마다 들려진 진솔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 넣었다.

조웅철 목사의 사죄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첫날 집회에서 허상회 목사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행6:1-7)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 목사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이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 될 것"이라고 피력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 목사는 '훈련받은 사람들'(눅5:1-11), '변화 받은 사람들'(왕하13:14-19),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21:1-7), '신앙의 여정'(왕하2:1-11)등의 말씀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강사 허상회 목사는 뉴저지 교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제1차 한인 목회자선교사 국제컨퍼런스

칼빈세계선교연구원(원장 김연택 박사)이 주최하는 제1차 한인 목회자, 선교사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0월 29일~11월 1일까지 미국 미시간 웨스턴신학교, 칼빈신학교, 프리트리폼트신학교에서 개최된다.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의 칼빈신학교와 웨스턴신학교의 저명한 교수와 목회자들이 강사로써 '건강한 교회의 설교', '건강한 교회와 리더십',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 양성', '건강한 교

회와 세계선교', '건강한 교회와 예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한편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위한 입학담당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본 컨퍼런스에는 해외한인선교사, 이민목회자,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616-392-2635 또는 Johnkimsma@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12년 KWMC 제25차 전국년차총회

11월 12-14일 은혜한인교회

2012년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25차 전국년차총회가 11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14일(수) 정오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월)부터 27일(월)까지 개최됐던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과 함께 앞으로의 KWMC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 선교현안에 대한

특강들이 열리게 된다.

주최 측은 총회참석을 위한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는 은혜한인교회에서 담당함으로써(교동비 자비 부담)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웹사이트(www.kwmc.com)를 참고하고 문의는 (845)267-4159, 이메일 kwmc@kwmc.com로 하면 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서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영성수련회

11-21일 동유럽 순회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총회장 이광희 목사) 2012년 영성수련회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유럽에서 개최됐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이번 수련회의 일정은 11일 독일 베를린 도착 후 Pergamon Museum(하벨론느브갓네살 왕이 건립했던 성문과 성벽을 떠다가 보관함) 견학했다. 12일에는 1945년 한반도 삼팔선을 그었던 포츠담 회담 장소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시무하던 성당을 거쳐 Prague/Czche Republic에 도착했다.

13일에는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는 비트 성당(700년에 걸쳐서 건립됨)과 몰다우 강(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에 나오는)을 유람선으로 관광하고, 15세기 중세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카알광장(1968년 프라하의 봄의 자유의 꽃 봉우리가 꽃을 피어보지도 못하고 썩어 썩었던), 카알 대교, Prague Baroque Consort를 관람했다.

14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 시내관광 후 순복음비엔나교회(담임 나가창 목사)에서 금요예배를 드리고 15일 오전에 비엔나 왕궁 및 시내관광, 쇼핑 및 음악가들의 무덤 답사 후 헝가리로 이동해 다뉴브강 안에 있는 온천성 'Margitsget'에서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18일에는 동유럽의 알프스 Tatra/Slovakia, 19일에는 폴란드의 옛 왕도 'Krakow'에 있는 윈들러 공장, 게토, 유대인 거주지, 왕궁 등을 방문하고 이튿날 유대인 15만 명을 대학살한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관람했다.

(기사제공: A/G 한국총회)



오레곤 한인회 문화센터 합창반과 오레곤 문화예술단 공연

오레곤한인회문화센터합창반과 문화예술단 공연

오레곤한인회 문화센터합창반(회장 라상희, 지휘 김석두, 반주 이정아)과 오레곤 문화예술단(단장 지승희)이 22일 오후 2시 로이드 센터 근처에 있는 은퇴센터인 Cararoga Terrace에서 공연을 가졌다. 9월을 인터내셔널 달로 정하고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요청에 따라 한국노래를 선보였으며 화관무를 공연하고 한국을 소개하

는 영상물을 소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이 영상으로 소개가 됐으며 공연팀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전통무용에 반한 청중들이 꼭 다시 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Calaroga Terrace는 3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기사제공: 오레곤한인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82)2-551-7797, Fax. (82)2-551-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82)31-621-2754-5 군포시 갈매동 870-103	금안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621-2754-5 군포시 갈매동 870-103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621-2754-5 군포시 갈매동 870-103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621-2754-5 군포시 갈매동 870-103	동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621-2754-5 군포시 갈매동 870-103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7:30 주일8부예배: 오후 7:30 주일9부예배: 오후 7:30 주일10부예배: 오후 7:30 주일11부예배: 오후 7:30 주일12부예배: 오후 7:30 주일13부예배: 오후 7:30 주일14부예배: 오후 7:30 주일15부예배: 오후 7:30 주일16부예배: 오후 7:30 주일17부예배: 오후 7:30 주일18부예배: 오후 7:30 주일19부예배: 오후 7:30 주일20부예배: 오후 7:30 주일21부예배: 오후 7:30 주일22부예배: 오후 7:30 주일23부예배: 오후 7:30 주일24부예배: 오후 7:30 주일25부예배: 오후 7:30 주일26부예배: 오후 7:30 주일27부예배: 오후 7:30 주일28부예배: 오후 7:30 주일29부예배: 오후 7:30 주일30부예배: 오후 7:30 주일31부예배: 오후 7:30 주일32부예배: 오후 7:30 주일33부예배: 오후 7:30 주일34부예배: 오후 7:30 주일35부예배: 오후 7:30 주일36부예배: 오후 7:30 주일37부예배: 오후 7:30 주일38부예배: 오후 7:30 주일39부예배: 오후 7:30 주일40부예배: 오후 7:30 주일41부예배: 오후 7:30 주일42부예배: 오후 7:30 주일43부예배: 오후 7:30 주일44부예배: 오후 7:30 주일45부예배: 오후 7:30 주일46부예배: 오후 7:30 주일47부예배: 오후 7:30 주일48부예배: 오후 7:30 주일49부예배: 오후 7:30 주일50부예배: 오후 7:30 주일51부예배: 오후 7:30 주일52부예배: 오후 7:30 주일53부예배: 오후 7:30 주일54부예배: 오후 7:30 주일55부예배: 오후 7:30 주일56부예배: 오후 7:30 주일57부예배: 오후 7:30 주일58부예배: 오후 7:30 주일59부예배: 오후 7:30 주일60부예배: 오후 7:30 주일61부예배: 오후 7:30 주일62부예배: 오후 7:30 주일63부예배: 오후 7:30 주일64부예배: 오후 7:30 주일65부예배: 오후 7:30 주일66부예배: 오후 7:30 주일67부예배: 오후 7:30 주일68부예배: 오후 7:30 주일69부예배: 오후 7:30 주일70부예배: 오후 7:30 주일71부예배: 오후 7:30 주일72부예배: 오후 7:30 주일73부예배: 오후 7:30 주일74부예배: 오후 7:30 주일75부예배: 오후 7:30 주일76부예배: 오후 7:30 주일77부예배: 오후 7:30 주일78부예배: 오후 7:30 주일79부예배: 오후 7:30 주일80부예배: 오후 7:30 주일81부예배: 오후 7:30 주일82부예배: 오후 7:30 주일83부예배: 오후 7:30 주일84부예배: 오후 7:30 주일85부예배: 오후 7:30 주일86부예배: 오후 7:30 주일87부예배: 오후 7:30 주일88부예배: 오후 7:30 주일89부예배: 오후 7:30 주일90부예배: 오후 7:30 주일91부예배: 오후 7:30 주일92부예배: 오후 7:30 주일93부예배: 오후 7:30 주일94부예배: 오후 7:30 주일95부예배: 오후 7:30 주일96부예배: 오후 7:30 주일97부예배: 오후 7:30 주일98부예배: 오후 7:30 주일99부예배: 오후 7:30 주일100부예배: 오후 7:30 주일101부예배: 오후 7:30 주일102부예배: 오후 7:30 주일103부예배: 오후 7:30 주일104부예배: 오후 7:30 주일105부예배: 오후 7:30 주일106부예배: 오후 7:30 주일107부예배: 오후 7:30 주일108부예배: 오후 7:30 주일109부예배: 오후 7:30 주일110부예배: 오후 7:30 주일111부예배: 오후 7:30 주일112부예배: 오후 7:30 주일113부예배: 오후 7:30 주일114부예배: 오후 7:30 주일115부예배: 오후 7:30 주일116부예배: 오후 7:30 주일117부예배: 오후 7:30 주일118부예배: 오후 7:30 주일119부예배: 오후 7:30 주일120부예배: 오후 7:30 주일121부예배: 오후 7:30 주일122부예배: 오후 7:30 주일123부예배: 오후 7:30 주일124부예배: 오후 7:30 주일125부예배: 오후 7:30 주일126부예배: 오후 7:30 주일127부예배: 오후 7:30 주일128부예배: 오후 7:30 주일129부예배: 오후 7:30 주일130부예배: 오후 7:30 주일131부예배: 오후 7:30 주일132부예배: 오후 7:30 주일133부예배: 오후 7:30 주일134부예배: 오후 7:30 주일135부예배: 오후 7:30 주일136부예배: 오후 7:30 주일137부예배: 오후 7:30 주일138부예배: 오후 7:30 주일139부예배: 오후 7:30 주일140부예배: 오후 7:30 주일141부예배: 오후 7:30 주일142부예배: 오후 7:30 주일143부예배: 오후 7:30 주일144부예배: 오후 7:30 주일145부예배: 오후 7:30 주일146부예배: 오후 7:30 주일147부예배: 오후 7:30 주일148부예배: 오후 7:30 주일149부예배: 오후 7:30 주일150부예배: 오후 7:30 주일151부예배: 오후 7:30 주일152부예배: 오후 7:30 주일153부예배: 오후 7:30 주일154부예배: 오후 7:30 주일155부예배: 오후 7:30 주일156부예배: 오후 7:30 주일157부예배: 오후 7:30 주일158부예배: 오후 7:30 주일159부예배: 오후 7:30 주일160부예배: 오후 7:30 주일161부예배: 오후 7:30 주일162부예배: 오후 7:30 주일163부예배: 오후 7:30 주일164부예배: 오후 7:30 주일165부예배: 오후 7:30 주일166부예배: 오후 7:30 주일167부예배: 오후 7:30 주일168부예배: 오후 7:30 주일169부예배: 오후 7:30 주일170부예배: 오후 7:30 주일171부예배: 오후 7:30 주일172부예배: 오후 7:30 주일173부예배: 오후 7:30 주일174부예배: 오후 7:30 주일175부예배: 오후 7:30 주일176부예배: 오후 7:30 주일177부예배: 오후 7:30 주일178부예배: 오후 7:30 주일179부예배: 오후 7:30 주일180부예배: 오후 7:30 주일181부예배: 오후 7:30 주일182부예배: 오후 7:30 주일183부예배: 오후 7:30 주일184부예배: 오후 7:30 주일185부예배: 오후 7:30 주일186부예배: 오후 7:30 주일187부예배: 오후 7:30 주일188부예배: 오후 7:30 주일189부예배: 오후 7:30 주일190부예배: 오후 7:30 주일191부예배: 오후 7:30 주일192부예배: 오후 7:30 주일193부예배: 오후 7:30 주일194부예배: 오후 7:30 주일195부예배: 오후 7:30 주일196부예배: 오후 7:30 주일197부예배: 오후 7:30 주일198부예배: 오후 7:30 주일199부예배: 오후 7:30 주일200부예배: 오후 7:30 주일201부예배: 오후 7:30 주일202부예배: 오후 7:30 주일203부예배: 오후 7:30 주일204부예배: 오후 7:30 주일205부예배: 오후 7:30 주일206부예배: 오후 7:30 주일207부예배: 오후 7:30 주일208부예배: 오후 7:30 주일209부예배: 오후 7:30 주일210부예배: 오후 7:30 주일211부예배: 오후 7:30 주일212부예배: 오후 7:30 주일213부예배: 오후 7:30 주일214부예배: 오후 7:30 주일215부예배: 오후 7:30 주일216부예배: 오후 7:30 주일217부예배: 오후 7:30 주일218부예배: 오후 7:30 주일219부예배: 오후 7:30 주일220부예배: 오후 7:30 주일221부예배: 오후 7:30 주일222부예배: 오후 7:30 주일223부예배: 오후 7:30 주일224부예배: 오후 7:30 주일225부예배: 오후 7:30 주일226부예배: 오후 7:30 주일227부예배: 오후 7:30 주일228부예배: 오후 7:30 주일229부예배: 오후 7:30 주일230부예배: 오후 7:30 주일231부예배: 오후 7:30 주일232부예배: 오후 7:30 주일233부예배: 오후 7:30 주일234부예배: 오후 7:30 주일235부예배: 오후 7:30 주일236부예배: 오후 7:30 주일237부예배: 오후 7:30 주일238부예배: 오후 7:30 주일239부예배: 오후 7:30 주일240부예배: 오후 7:30 주일241부예배: 오후 7:30 주일242부예배: 오후 7:30 주일243부예배: 오후 7:30 주일244부예배: 오후 7:30 주일245부예배: 오후 7:30 주일246부예배: 오후 7:30 주일247부예배: 오후 7:30 주일248부예배: 오후 7:30 주일249부예배: 오후 7:30 주일250부예배: 오후 7:30 주일251부예배: 오후 7:30 주일252부예배: 오후 7:30 주일253부예배: 오후 7:30 주일254부예배: 오후 7:30 주일255부예배: 오후 7:30 주일256부예배: 오후 7:30 주일257부예배: 오후 7:30 주일258부예배: 오후 7:30 주일259부예배: 오후 7:30 주일260부예배: 오후 7:30 주일261부예배: 오후 7:30 주일262부예배: 오후 7:30 주일263부예배: 오후 7:30 주일264부예배: 오후 7:30 주일265부예배: 오후 7:30 주일266부예배: 오후 7:30 주일267부예배: 오후 7:30 주일268부예배: 오후 7:30 주일269부예배: 오후 7:30 주일270부예배: 오후 7:30 주일271부예배: 오후 7:30 주일272부예배: 오후 7:30 주일273부예배: 오후 7:30 주일274부예배: 오후 7:30 주일275부예배: 오후 7:30 주일276부예배: 오후 7:30 주일277부예배: 오후 7:30 주일278부예배: 오후 7:30 주일279부예배: 오후 7:30 주일280부예배: 오후 7:30 주일281부예배: 오후 7:30 주일282부예배: 오후 7:30 주일283부예배: 오후 7:30 주일284부예배: 오후 7:30 주일285부예배: 오후 7:30 주일286부예배: 오후 7:30 주일287부예배: 오후 7:30 주일288부예배: 오후 7:30 주일289부예배: 오후 7:30 주일290부예배: 오후 7:30 주일291부예배: 오후 7:30 주일292부예배: 오후 7:30 주일293부예배: 오후 7:30 주일294부예배: 오후 7:30 주일295부예배: 오후 7:30 주일296부예배: 오후 7:30 주일297부예배: 오후 7:30 주일298부예배: 오후 7:30 주일299부예배: 오후 7:30 주일300부예배: 오후 7:30 주일301부예배: 오후 7:30 주일302부예배: 오후 7:30 주일303부예배: 오후 7:30 주일304부예배: 오후 7:30 주일305부예배: 오후 7:30 주일306부예배: 오후 7:30 주일307부예배: 오후 7:30 주일308부예배: 오후 7:30 주일309부예배: 오후 7:30 주일310부예배: 오후 7:30 주일311부예배: 오후 7:30 주일312부예배: 오후 7:30 주일313부예배: 오후 7:30 주일314부예배: 오후 7:30 주일315부예배: 오후 7:30 주일316부예배: 오후 7:30 주일317부예배: 오후 7:30 주일318부예배: 오후 7:30 주일319부예배: 오후 7:30 주일320부예배: 오후 7:30 주일321부예배: 오후 7:30 주일322부예배: 오후 7:30 주일323부예배: 오후 7:30 주일324부예배: 오후 7:30 주일325부예배: 오후 7:30 주일326부예배: 오후 7:30 주일327부예배: 오후 7:30 주일328부예배: 오후 7:30 주일329부예배: 오후 7:30 주일330부예배: 오후 7:30 주일331부예배: 오후 7:30 주일332부예배: 오후 7:30 주일333부예배: 오후 7:30 주일334부예배: 오후 7:30 주일335부예배: 오후 7:30 주일336부예배: 오후 7:30 주일337부예배: 오후 7:30 주일338부예배: 오후 7:30 주일339부예배: 오후 7:30 주일340부예배: 오후 7:30 주일341부예배: 오후 7:30 주일342부예배: 오후 7:30 주일343부예배: 오후 7:30 주일344부예배: 오후 7:30 주일345부예배: 오후 7:30 주일346부예배: 오후 7:30 주일347부예배: 오후 7:30 주일348부예배: 오후 7:30 주일349부예배: 오후 7:30 주일350부예배: 오후 7:30 주일351부예배: 오후 7:30 주일352부예배: 오후 7:30 주일353부예배: 오후 7:30 주일354부예배: 오후 7:30 주일355부예배: 오후 7:30 주일356부예배: 오후 7:30 주일357부예배: 오후 7:30 주일358부예배: 오후 7:30 주일359부예배: 오후 7:30 주일360부예배: 오후 7:30 주일361부예배: 오후 7:30 주일362부예배: 오후 7:30 주일363부예배: 오후 7:30 주일364부예배: 오후 7:30 주일365부예배: 오후 7:30 주일366부예배: 오후 7:30 주일367부예배: 오후 7:30 주일368부예배: 오후 7:30 주일369부예배: 오후 7:30 주일370부예배: 오후 7:30 주일371부예배: 오후 7:30 주일372부예배: 오후 7:30 주일373부예배: 오후 7:30 주일374부예배: 오후 7:30 주일375부예배: 오후 7:30 주일376부예배: 오후 7:30 주일377부예배: 오후 7:30 주일378부예배: 오후 7:30 주일379부예배: 오후 7:30 주일380부예배: 오후 7:30 주일381부예배: 오후 7:30 주일382부예배: 오후 7:30 주일383부예배: 오후 7:30 주일384부예배: 오후 7:30 주일385부예배: 오후 7:30 주일386부예배: 오후 7:30 주일387부예배: 오후 7:30 주일388부예배: 오후 7:30 주일389부예배: 오후 7:30 주일390부예배: 오후 7:30 주일391부예배: 오후 7:30 주일392부예배: 오후 7:30 주일393부예배: 오후 7:30 주일394부예배: 오후 7:30 주일395부예배: 오후 7:30 주일396부예배: 오후 7:30 주일397부예배: 오후 7:30 주일398부예배: 오후 7:30 주일399부예배: 오후 7:30 주일400부예배: 오후 7:30 주일401부예배: 오후 7:30 주일402부예배: 오후 7:30 주일403부예배: 오후 7:30 주일404부예배: 오후 7:30 주일405부예배: 오후 7:30 주일406부예배: 오후 7:30 주일407부예배: 오후 7:30 주일408부예배: 오후 7:30 주일409부예배: 오후 7:30 주일410부예배: 오후 7:30 주일411부예배: 오후 7:30 주일412부예배: 오후 7:30 주일413부예배: 오후 7:30 주일414부예배: 오후 7:30 주일415부예배: 오후 7:30 주일416부예배: 오후 7:30 주일417부예배: 오후 7:30 주일418부예배: 오후 7:30 주일419부예배: 오후 7:30 주일420부예배: 오후 7:30 주일421부예배: 오후 7:30 주일422부예배: 오후 7:30 주일423부예배: 오후 7:30 주일424부예배: 오후 7:30 주일425부예배: 오후 7:30 주일426부예배: 오후 7:30 주일427부예배: 오후 7:30 주일428부예배: 오후 7:30 주일429부예배: 오후 7:30 주일430부예배: 오후 7:30 주일431부예배: 오후 7:30 주일432부예배: 오후 7:30 주일433부예배: 오후 7:30 주일434부예배: 오후 7:30 주일435부예배: 오후 7:30 주일436부예배: 오후 7:30 주일437부예배: 오후 7:30 주일438부예배: 오후 7:30 주일439부예배: 오후 7:30 주일440부예배: 오후 7:30 주일441부예배: 오후 7:30 주일442부예배: 오후 7:30 주일443부예배: 오후 7:30 주일444부예배: 오후 7:30 주일445부예배: 오후 7:30 주일446부예배: 오후 7:30 주일447부예배: 오후 7:30 주일448부예배: 오후 7:30 주일449부예배: 오후 7:30 주일450부예배: 오후 7:30 주일451부예배: 오후 7:30 주일452부예배: 오후 7:30 주일453부예배: 오후 7:30 주일454부예배: 오후 7:30 주일455부예배: 오후 7:30 주일456부예배: 오후 7:30 주일457부예배: 오후 7:30 주일458부예배: 오후 7:30 주일459부예배: 오후 7:30 주일460부예배: 오후 7:30 주일461부예배: 오후 7:30 주일462부예배: 오후 7:30 주일463부예배: 오후 7:30 주일464부예배: 오후 7:30 주일465부예배: 오후 7:30 주일466부예배: 오후 7:30 주일467부예배: 오후 7:30 주일468부예배: 오후 7:30 주일469부예배: 오후 7:30 주일470부예배: 오후 7:30 주일471부예배: 오후 7:30 주일472부예배: 오후 7:30 주일473부예배: 오후 7:30 주일474부예배: 오후 7:30 주일475부예배: 오후 7:30 주일476부예배: 오후 7:30 주일477부예배: 오후 7:30 주일478부예배: 오후 7:30 주일479부예배: 오후 7:30 주일480부예배: 오후 7:30 주일481부예배: 오후 7:30 주일482부예배: 오후 7:30 주일483부예배: 오후 7:30 주일484부예배: 오후 7:30 주일485부예배: 오후 7:30 주일486부예배: 오후 7:30 주일487부예배: 오후 7:30 주일488부예배: 오후 7:30 주일489부예배: 오후 7:30 주일490부예배: 오후 7:30 주일491부예배: 오후 7:30 주일492부예배: 오후 7:30 주일493부예배: 오후 7:30 주일494부예배: 오후 7:30 주일495부예배: 오후 7:30 주일496부예배: 오후 7:30 주일497부예배: 오후 7:30 주일498부예배: 오후 7:30 주일499부예배: 오후 7:30 주일500부예배: 오후 7:30 주일501부예배: 오후 7:30 주일502부예배: 오후 7:30 주일503부예배: 오후 7:30 주일504부예배: 오후 7:30 주일505부예배: 오후 7:30 주일506부예배: 오후 7:30 주일507부예배: 오후 7:30 주일508부예배: 오후 7:30 주일509부예배: 오후 7:30 주일510부예배: 오후 7:30 주일511부예배: 오후 7:30 주일512부예배: 오후 7:30 주일513부예배: 오후 7:30 주일514부예배: 오후 7:30 주일515부예배: 오후 7:30 주일516부예배: 오후 7:30 주일517부예배: 오후 7:30 주일518부예배: 오후 7:30 주일519부예배: 오후 7:30 주일520부예배: 오후 7:30 주일521부예배: 오후 7:30 주일522부예배: 오후 7:30 주일523부예배: 오후 7:30 주일524부예배: 오후 7:30 주일525부예배: 오후 7:30 주일526부예배: 오후 7:30 주일527부예배: 오후 7:30 주일528부예배: 오후 7:30 주일529부예배: 오후 7:30 주일530부예배: 오후 7:30 주일531부예배: 오후 7:30 주일532부예배: 오후 7:30 주일533부예배: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사무총장을 청빙(청빙위원장 Paul C. Yang 목사)한다. 자격은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나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사역하고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받고 학위취득 한 이중 언어에 능숙한 영주권(시민권)자로 본 교단 P. I. F. 한영 이력서, 소견 및 신앙고백서, 사진 1매,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마감은 10월 15일까지이며 서류제출은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로 하면 된다.

▲문의: (201)843-2222

선교장학생 모집

KWMC평신도 선교운동본부가 선교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북미주 거주자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나 훈련에 임하는 자, 혹은 선교사역을 준비 중인 신학생으로 일인당 1천 달러가 지급된다. 마감은 10월 31일. 신청서(www.kwmc.com에서 다운로드),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에세이 2-3장이 필요하다.

▲문의: (269)372-4262 hmrhiew@sbcglobal.net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 상영

최고의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감독 김상철)이 10월 한달 동안 뉴욕 각 교회에서 상영된다.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를 주제로 배우 권오중과 이현우가 출연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5일(금) 뉴욕에일장로교회 △10월(수) 뉴욕중부교회 △12월(금) 뉴욕어린이양교회 △17일(수) 뉴욕평화교회 선교관 △19일(금) 뉴욕성교회 △26일(금) 뉴욕목양장로교회 △28일(주) 뉴저지땅끝교회. 이번 상영을 주관하는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은 이외의 시간에 타 교회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문의: (347)538-1587

제 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재 빌 페더리)가 주최하는 제 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에서 개최된다. 3-5일은 컨퍼런스, 6, 7일은 미국 공립 사립 학교 교육현장을 답사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 신청접수처는 jp@midwest.edu.

▲문의: 070-8690-2662(인터넷전화)



백투위십이 할렘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

백투위십, 할렘 “Reach Week” 집회서 찬양

백투위십(Back To Worship, 대표 이종길)이 지난 22일 뉴욕 할렘 125가 State Office Building 광장에서 열린 “Reach Week” 집회에서 순서를 맡아 국악과 어우러진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회는 Terrance L. Kennedy 목사가 리더로 있는 New Hope For The World Ministries In.(NHWM)의 5번째 집회로, 뉴요프커뮤니티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브라질, 한국, 일본, 홍콩, 우간다 등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했다.

백투위십은 특별히 한국 위십팀으로 참여해 할렘의 가장 중심가이며 변화기인 125가에서 최초로 위십 찬양을 하며 뜻있는 기회를 가졌다. 영어 찬양과 한국어 찬양에 국악을 접목시켜 더욱 신선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하는 동시에 할렘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백투위십)

“작은교회 부흥 돕고 회원화합 노력”

뉴저지교협 회장/박상천, 부회장/이성일 목사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재도 목사)는 지난 24일 저녁, 뉴저지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현 부회장 박상천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박상천 목사는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들이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가능하면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을 교협이 앞장서서 더욱 섬기고 부흥하도록 돕겠다”며 회원들 간에

화합을 이루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상천 목사 △부회장 이성일 목사(리빙스톤감리교회), 이동구 장로(필그림교회)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서기 조재원 목사(에셀교회) △회계 변형순 장로(소망교회).

뉴저지교협의 연례행사로는 △11월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1월 신

년하례식 △3월 호산나 청소년대회 △4월 부활절새벽연합예배 △5월



뉴욕전도협 연합전도부흥성회에서 주순영 선교사가 간증하고 있다.

“북녘땅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서사시”

뉴욕전도협 주최 탈북배우 주순영 선교사 간증집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한 “주순영 선교사 신앙간증”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에 걸쳐 뉴욕낙원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뉴욕복음화 연합전도부흥성회로 열린 이 집회에서 탈북공훈배우 주순영 선교사는 “북녘땅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서사시” 주제로, 북한의 뒷이야기와 공을 세우려 갔던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등을 간증으로 풀어 나갔다.

그동안 전도협회는 전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전도 집회로 열렸으나, 이번에는 주순영 선교사를 강사로 전도대상자를 집회에 초청해 전도하는 연합전도부흥성회로 열렸다.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사43:21), 둘째 날 “심일조로 만난 하나님”(말3:10), 셋째 날 “사

호산나 어린이찬양제 △6월 호산나성회 등이 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지난 회기에 특별사업으로 4월에 성지순례를 하고 호산나대회에 이은 선교컨퍼런스와 하정일 장로초청 사랑콘서트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새 임원들. 가운데가 회장 박상천 목사.



김홍도 목사가 뉴욕반석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지옥은 있다...공의의 하나님 강조

뉴욕반석교회 김홍도 감독 초청집회

금란교회 김홍도 감독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반석교회(담임 김대희 목사)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마지막 날 담임 김대희 목사는 후보도 만들지 않고 교인들의 영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니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고백하며 완전히 몸을 던져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있는 후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에서 김홍도 목사는 계시록 21장 1-8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성령임재, 부활과 천국, 지옥에 대해 시종일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천국지옥을 믿어야 안타까워 열심히 전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천국을 알 수 있다”며 “하나님나라는 이미 우리 마

음속에 와 있지한 하늘나라는 3층 천으로 돼 있어 1층천(Sky), 2층천(Space), 3층천(Heaven)으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후 이 세상 것을 분토로 여겼다”고 말했다.

또 천국에 없는 것,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현대 교회가 지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옥을 부인하고 복, 사랑, 섬김만 강조하는 긍정의 설교는 잘못된 것임을 강조했다. “죽,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금란교회가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130년 전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를 거쳐 대대로 내려오면서 쌓아온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바자회가 열리는 가운데 색소폰동호회가 연주를 하고 있다.

뉴욕나눔의집 겨울나기 돕기 바자회

22일, 1700달러 모금...찬양연주도 한몫

한인노숙인의 쉼터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겨울나기 돕기 바자회가 지난 22일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 플러싱 선교관에서 열렸다.

의류와 아이기 등 유명브랜드 신발, 잡화, 뷰티서플라이 등과 신선한 농장 직송사과와 전라도 농수산 물도 함께 판매했다. 우동, 제육덮밥, 떡볶이, 오뎀, 파전, 스시, 순대, 특별공연 등의 음식을 맨해튼 시시맨 등 일류요리사들이 두 시간 동안 요리하는 재능기부로 제공하기

도 했다. 또 오후에는 필그림선교무용단, 색소폰동호회, 뉴욕찬양마을 등의 찬양으로 바자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박성원 지도목사는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일 8시간동안 1,700달러의 기금을 모으게 돼 나눔의 집이 겨울을 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을 원하면 (718)539-9090, 683-8884로 문의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안내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718) 224-2222, Fax: (718) 224-2222 40-75 Penners Blvd, Flushing, NY 11355 www.gatsema.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45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제2차)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주일3부예배: 오후 11:00 Tel: (718) 381-8177, Fax: (718) 381-8177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6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481-2810, Fax: (718) 481-2810 40-84 162 St, Flushing, NY 11355 www.saram.org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Tel: (718) 481-2810, Fax: (718) 481-2810 40-84 162 St, Flushing, NY 11355 www.saram.org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45(월-토)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자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8부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 782-8758, 8825, Fax: (718) 782-8758 42-75 189th St, Flushing, NY 11355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Tel: (718) 381-8177, Fax: (718) 381-8177 31-87 164 St, Flushing, NY 11355	통아일랜드성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메디니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어린이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백열 1부 기도회/제자훈련: 오전 8:30 2부 기도회/제자훈련: 오전 11:30 3부 기도회: 오후 10:45 4부 기도회: 오후 2:30 5부 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6: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782-8758, 8825, Fax: (718) 782-8758 42-75 189th St, Flushing, NY 11355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15 수요예배: 오후 8:0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림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 381-8100, Fax: (718) 381-8100 40-55 Jackson Ave, Queensville, NY 11104 www.mokyang.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985-0009 Fax: (323) 985-0009 ■ N.Y.: Tel: (718) 888-6400 Fax: (718) 888-64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985-0009 Fax: (323) 985-0009 ■ N.Y.: Tel: (718) 888-6400 Fax: (718) 888-64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202-714-6666, Fax: 202-714-6666 Rue Jeanette Plaza, 281 Central Rue Jeanette Plaza, 281 Central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8283, 3277-1165 R. L. Hines Blvd W. L. Hines Blvd, Suite 200, Washington, DC 20005-200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55) 11-3270-8283, 3277-1165 R. L. Hines Blvd W. L. Hines Blvd, Suite 200, Washington, DC 20005-200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54) 11-3270-8283, 3277-1165 R. L. Hines Blvd W. L. Hines Blvd, Suite 200, Washington, DC 20005-20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 Fax: (56) 2222-5555-5555 Santiago Chile - 3 Calle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596) 121-574-896 E-mail: hseoh@paraguay.net Carverton MO, 1201, Asuncion-PARAGUAY

Now is the Time... ‘믿음회복’

제27회 HYM 청년연합집회 성황

HYM(남가주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러스 김)은 제27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를 22일과 23일 양일간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개최했다.

‘Now is the Tim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강사로 나선 이승종 목사(어깨동무사역원 대표)가 첫날 ‘예수회복’(눅2:41-5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등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는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린 성공은 실패다”라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을 이뤄



제27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야 한다. 진정한 부흥은 가짜교인이 예수님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참새가 아닌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의 힐링캠프이며 축복의 현장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며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믿음회복’(산상17:45-50)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 돈? 환경? 건강인가? 인생을 사는 데 장애물이 많다. 한번 사는 인생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왜 드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물들이다. 따라서 어

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다보면 낙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첫날 토렌스조은교회 청년부 찬양팀의 오프닝 찬양으로 시작, 남성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청년부 담당)가 개회기도, 최경철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청년부 담당)가 봉헌기도를 했으며 둘째 날 오프닝 찬양은 박선영 자매(나성영락교회)가, 개회기도는 고재석 전도사(인랜드교회), 봉헌기도는 정기홍 전도사(남가주사랑의교회 대학부 담당)가 했다. 또한 김경옥 자매(일서연합감리교회)와 토렌스조은교회 청년부 총창단의 특송도 준비됐으며 남가주지역 각 교회에서 참여했다.

한편 프라페틱 아티스트(prophetic artist) 자넷헨 씨가 둘째 날 집회 찬양시간에 캔버스에 영감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윤주영 목사(크로스로드교회)가 인도하는 HYM워십팀이 뜨거운 찬양인도로 양일간 집회장소인 토렌스조은교회 본당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가 돼 열정적인 찬양과 자신의 비전과 문제를 내놓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8회 집회는 2013년 봄 브레아에 위치한 나침반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이 오는 10월6일 열리는 닉 부이치치 초청 집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닉부이치치 초청 부흥집회 연다

KYVC, 10월 6일 감사한인교회에서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The Korean Youth Vision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대표 김영길 목사)는 오는 10월6일(토) 오후 7시 닉부이치치 전도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흥집회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한다.

KYVC 김영길 대표, 김영대 이사장, 전동은 사무총장 등은 지난 20일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집회는 닉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400회 이상 집회계획이 잡혀있는 스케줄을 뒤로한 채 남가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해 감사한인교회에서 열었던 닉부이치치 초청집회 때 부이치치가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열고 싶다고 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고 밝혔다.

KYVC 이사장 김영대 목사는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2007년 1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년하례 예배 때 남가주의 중부지역에 청소년센터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해 7월 중부교회연합산하기관으로 창립됐다”고 소개하고 “중부교회 연합 산하기관이지만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로 명칭을 정한 것은 중부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남가주 전체지역의 일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청소년 교육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청소년들 양육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앞장설까 생각하면서 부흥회 등을 개최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 한인경찰들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걱정거리인 마약문제 해결 세미나 개최, 한국고유문화재 행사 등을 개최해왔다”고 그동안 KYVC의 사역에 대해 밝혔다.

KYVC 대표인 김영길 목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서부교회 게시판

west

미주장신대 2012년 가을 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는 2012년 가을 신앙사경회를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 ▲문의: (562)926-1023

풀러튼한마음교회 설립32주년기념 음악예배

풀러튼에 위치한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 목사)는 설립32주년을 맞아 10월 7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시간을 통해 특별음악예배를 드린다. 본 교회 찬양대(지휘 전중재)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예배이다. 한편 32주년 행사로 구역별 친선탁구대회와 친선골프대회도 개최된다. ▲문의: (562)412-8274

담임목사 청빙

가주장로교회가 현 담임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회자를 청빙한다. KPCA 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로 정규신학대학에서 교역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이념목회 3년 이상 단독목회, 또는 불평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서, 최근 설교테이프, 교계원로 추천서, 신앙고백 및 목회소견서이며 접수마감은 10월 6일까지이다. ▲문의: Pastorjkmmin@yahoo.com

담임목사 청빙

텐버한인장로교회에서 양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나 또는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로 3년 이상 단독목회, 또는 부목사 경력이 있고 이중언어가 가능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본인과 사모 소개, 신앙간증문과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 2회분, 2인 이상 목사추천서 학위 및 안수증명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303)422-8777

은혜와평강교회 부흥성회 및 위임예식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광덕근 목사)는 10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감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담임)를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7일 오후 5시 광덕근 목사 위임예식을 갖는다. 고 유상수 목사의 후임목사로 은혜와평강교회를 섬겨오고 있는 광덕근 목사는 풀러튼신학대학원(D.Min), 리버티신학대학원(Th.M), 종신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마치고 뎀프스연합장로교회 담임을 역임했다. ▲문의: (818)894-9266

당하는 것의 두려움으로 인해 갠단에 들어간다. 그것은 자신들을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갠들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갠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라고 말하며 “뉴욕의 경우 청소년관련 행사 때 청소년센터의 참여를 요청할 정도로 청소년센터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KYVC 역시 지금은 미약하지만 청소년들의 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VC는 세리토스하이스쿨, 사이프레스하이스쿨, 가하이스쿨, 워렌하이스쿨 등 남가주 중부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사역자들을 파견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역자들은 1주일에 한차례 학교에 찾아가 한인학생들에게 피자를 사주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현재 KYVC는 이들 고등학교에서 클로 등록되었으며 모이는 시간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예배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부지역 외에 LA하이스쿨에서도 모임을 갖고 있다. 각 학교들은 KYVC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변화되기도 하며 LA하이스쿨의 경우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KYVC사역은 풀러튼 놀이를 비롯해 9개의 고등학교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이사장은 청소년사역을 위해 마련된 집회이니만큼 기도 외에 물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면 후원을 원하는 이들은 KYVC 앞으로 수표를 끊어 1241 Imperial Hwy. #G, La Mirada, CA 90638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714)904-6298

<박준호 기자>

“SS혁신보고서” 의 저자 김만형 박사 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다음세대의 부흥, 주일학교 성장 동력을 찾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학교교육으로는 자녀의 인성교육은 물론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교육마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회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만형 목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교육학 박사(Ph.D.)
현)천주교교회 담임목사
(자)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원장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학원 교수(출강)
저서)SS혁신보고서, SS자녀교육보고서,
예배 속 드라마1,2, 크리스찬축제1,2,3

일시	9월28일(금)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1
	9월29일(토)	새벽6시00분	자녀교육세미나2
	9월29일(토)	오전10시-오후4시	주일학교교사세미나
	9월29일(토)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3
	9월30일(주일)	오후3시	자녀교육세미나4
	10월1일(월)	오전10시-오후12시	목회자세미나
	10월1일(월)	오후1시-3시	치세대솔루션 목회자 포럼

장소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691-0691

주최 OC가톨릭교회협의회(회장 임영민목사),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업목사)

후원 남가주가톨릭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목사),
OC목사회(회장 신종은목사), OC가톨릭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집사),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목사), 자세대연구소(소장 송규식목사)

문의 714)699-0210 562)691-0691

2012 교단 총회로 본 2013년도 ‘한국교회 기상도’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교단 내부 개혁부터 교회 연합·일치운동에 이르기까지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을 통해 향후 교계의 활동방향을 내다봤다.

◇교회 일치·연합 활동 ‘흐림’=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장로교단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 이들 연합기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총회를 치른 10개 주요 교단 중 8개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예장통합·합신)하거나 행정보류(유지)를 결정했다. 또 10개 교단 중 한교연 가입 교단은 4곳, 가입 유보(교류는 유지)를 결정한 곳은 예장고신 및 합신 등 2곳으로 파악됐다. 한교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회원교단 가입 현황을 비롯한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한기총과 한교연 사이에서는 각각 양대 가입 교단인 예장통합과

예장통합을 주축으로 교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예정된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를 둘러싼 개최 찬반 및 신학적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활절 연합예배, 8·15 광복절 연합예배 등의 성사 여부도 미지수다.

‘찬송가 재발행’ 문제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 핵심 교단인 예장통합이 새로운 찬송가 보급 문제와 관련, 안건을 폐기한 데 이어 예장통합도 1년 더 연구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한 것, 이와 함께 예장통합이 예장합동 출신의 한기총 전·현직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면서 이단 논쟁도 불거질 조짐이다.

◇반기독교·이단 세력 대응 ‘맑음’=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자’는 교계 활동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 반기독교 세력과 신천지 등 이단 집단에 대한 교단들의 대응은 일사불란함을 보였다. 예장합동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에 의뢰한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종자연에 대한 교단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책위를 꾸렸다. 예장고신도 종자연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동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예장통합은 단군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1년 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지했고, 주요 교단들은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집단에 대한 경계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교단 자정·선진화 활동 ‘흐림

뒤 맑음’=교계 안팎의 관심을 불러온 선거법 개정과 여성참여 확대 등 교단 선진화 시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단총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예장통합의 경우 벌칙 조항이 한층 강화된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이 앞방이 빠진 채 통과됐다. 핵심 개정안이었던 선거법 위반 시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임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금품 제공자에게 50배의 벌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총대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제도 도입 역시 총대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반면 부총회장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기장 총회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총무 직선제는 기각됐다. 총무 직선제가 장로와 목사를 대표하는 장로회의 대의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넘지 못했다.

기감 선관위 “선거중단 유감” 성명 소송단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원의 가치분 신청인용으로 감독회장선거 및 2건의 감독선거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기감 선관위는 나머지 8개 연회의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가치분 신청을 냈던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나머지 선거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감독회장선거와 동부연회 감독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서울남연회 감독감독후보자 등록료결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자 기감 선관위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성명에서 “범원의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선거와 서울남연회·동부연회 감독선거를 중지한다”며 “감리교회 모든 성

도들에게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정의 선거법에 근거해 선거를 철저히 관리했고, 선거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진행했다”면서 “제상 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사과하긴 했지만, 선관위의 잘못으로 중요한 선거 3건이 무산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기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단은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된 선관위에 선거 업무를 계속 맡기는 것

은 상식에 반한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들 전원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단소송단은 “장정의 범죄경력 조항에 저촉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후보가 더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면서 “나머지 선거도 일단 중지하고 후보자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단은 21일 김기택 기감임시감독회장을 만나 중단된 선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막가파식 불교계 정화하자” 일간지 광고가 기독교계 음모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조계사 호법위원회가 제기한 ‘불교를 혼란케 하려는 기독교계의 공작’ 의혹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사 호법위는 지난 18일 한 일간지에 “자정능력 상실한 조계종, 막가파식 승가를 정화하자”는 제목의 성명서가 게재되자 긴급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 성명서는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과 성호 승려 명의로 실렸다. 조계사 호법위는 성명서 하단에 기재된 후원계좌에 대해 “소망교회에 다니는 엄모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계좌로 확인됐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 사무실 계좌가 어떻게 유령단체와 연결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

기했다. 이어 “불교 편향과 조계종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련의 흐름에 일부 보수 기독교계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도 비슷한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불교계가 내부 문제를 외부로 전가시키려 한다”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교회언론회는 엄 변호사의 해명

을 토대로 이번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인의 소개로 성호 승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기자회견이 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조계사 호법위의 주장에 대해 “지도자급 승려의 비위를 영동하게 종교계의 싸움으로 논점을 변경해 명분을 찾으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2 희망축제’ 연인원 5만명 돌파 가수 윤복희·이용 등 기독교연예인들 대거 출연

한국교회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2012 희망축제’에 비신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개최교회마다 부흥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민미션(대표 김동민 선교사)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3일 동안 지역

주민을 초청, 신실한 신앙심과 깊은 영성을 가진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과 찬양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문화전도 집회다.

출연진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복희, ‘잊혀진 계절’을 부른 10월의 가수 이용, 탤런트 이진우·이용경 부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등 내로라하는 기독교 연예인으로 구성돼 있다.

희망축제는 지난 해 6월 서울 성북교회(이태희 목사)를 시작으로 광주일곡교회(정연수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구미상모교회(김승동 목사), 서울 순복음대봉교회(김용준 목사), 서산성결교회

(이기용 목사)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돼 연인원 5만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다음 달 7-9일 춘천 중앙교회(권오서 목사), 14~16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 19-21일 서울 대치동교회(하인택 목사) 등에서 개최된다.

국민미션은 새로운 이미지의 전단지과 포스터, 현수막 등을 주최교회에 제작해준다.

2012 주요 교단 총회 결산

통합, 설립 주도한 한기총서 23년 만에 탈퇴 합동, 가스총 소동 등 장자교단 자존심에 상처

○…정준모 예장 합동 총회장이 18일 총회에서 감사부·재판부 부원들로부터 일일이 다짐을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 각 부서 임원들은 보통 총대를 앞에서 의례적 인사를 하지만 이날만큼은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손을 들고 선서까지 했다. 정 총회장은 “과거 총회가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감

교 단	안 건	결 과
예장통합	-GMS 문제 -총자연 문제 -신자제도 변경 -교회지 제정 남부 -총회장 후보자제 -임시사서 문제 -찬송가 문제	-GMS 새 임원에게 맡겨 처리 -교단 결의문 채택, 대책위원회 조직하기로 -재미교회+직선제 변경 -신인 연구대행위원 구성 연구 -임원제 이상으로 운영조항 -합동에서 150인 구성해 개정 -임원회에 맡겨 5년특별조치제위원회 구성
예장통합	-연합기관 관계 -연합재단 개혁 -연합신학교 개편 -한국선교회의 총회개혁 -주교추방 문제 -찬송가 문제	-한기총 탈퇴·한교연 가입 -연합재단 통합·연합재단 -연합신학교 개편 -한국선교회의 총회개혁 -주교추방 문제 -찬송가 문제
기장	-총무 직선제 -총신교회총회위원회	-21C 총신기밀위원회서 1년간 연구 -총신기밀, 기독교 총신기밀위원회서 연구
예장합신	-연합기관 개혁 -교회지 제정 남부 -총회장 후보자제 -연합신학교 개편 -한국선교회의 총회개혁 -주교추방 문제 -찬송가 문제	-한교연 가입 결정, 한기총과는 결별 -기감에 대한 총회 연합 개정(장년제 유지하되 탈퇴) -신설 양기교 결정 -기감
예장고신	-연합기관 개혁 -찬송가 문제	-한교연 가입 결정, 한기총과는 결별 -찬송가 문제
예장대신	-총무 직선제 변경 -예측사서 안수 -총회개혁 헌정 안수	-총무직선제 변경 -예측사서 안수 -총회개혁 헌정 안수
기감	-예측사서 안수 -총신대 총신 문제 -총회개혁 헌정 안수	-예측사서 안수 -총신대 총신 문제 -총회개혁 헌정 안수
예장개혁 (총회개혁)	-WCC 관련 -세계교회협의회 유관 -목사 신학사상 검토	-WCC 관련 -세계교회협의회 유관 -목사 신학사상 검토

사부와 재판부의 잘못된 처신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별히 두 부서는 정발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야 우리 총회가 산다”고 신신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홍정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총대들은 신임 사무총장 인준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투표 없이 박수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모아 이 목사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그릇 같은 부족한 자를 사무총장으로 인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사무총장직을 공적 사역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순교의 자세로, 순례자의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 배재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회 기획국장,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필리핀 아테신학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총교회 분당성전에서 열린 기침 총회장 밖에서는 침례신문 등 기관별로 홍보부스를 마련,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총회는 총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침례병원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침 총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회 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총회장 밖에서 ‘여성목사 안수안’ 투표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전도사 등은 과반수 찬성을 얻었는데도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자 아쉬움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교계 단신

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한국기독교 130여년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이 20일 문을 열었다. 진흥문화사(회장 박경진 장로)는 이날 오후 서울 신철동 진흥빌딩 4층에서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관장 박경진 장로) 개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한국 기독교선교 초기의 역사와 유적지를 보존·발굴하기 위해 세워졌다.

165㎡ 규모의 문화관에는 한국 최초 한글성경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영인본 등 다양한 기독교 유물과 자료를 볼 수 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란 조각 공예품은 서상원·서정주·서경주 1887년 8월가 죽판에 앞뒤로 한글로 은판 조각을 하여 만든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또 1900년 당시 전국교회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달력도 눈길을 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영생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식, 각종행사

아로마센타6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짐스 전가방)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1. Pastor's Title <i>The Korean Christian Press</i>	2. Submitted by (Print Name) <i>Sam H. Kim</i>
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2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3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4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5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6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7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8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1.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2.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3.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4.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5.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6.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7.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8.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99.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100. Submitter's Address <i>Sam H. Kim</i>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원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 열려

허정기 목사(몬트리올한인교협 회장, 호산나교회 담임)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당당히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스포츠 강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1948년 태극마크를 달고 첫 출전한 이래 한국은 오랫동안 금메달을 따기 원했다. 그 소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몬트리올이다. 1976년 제24회 하계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첫 금메달을 한국에 안겨 주었다. 그 때 아나운서가 울먹이며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던 모습을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몬트리올에서 한인교회들에 의해 또 하나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다. 몬트리올은 4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북미에서는 열두 번째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곳의 특징은 불어에 있다. 특별히 이곳에 이민 오는 자녀들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불어권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은 불어만 사용하는 도시는 아니다. 불어와 함께 영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도시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대학교인 맥길을 비롯 영어대학교와 불어대학교가 각각 두 개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TV나 라디오 방송도 영어와 불어가 그 채널의 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의 젊은이들은 불어에 매우 능통하면서도 영어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불어와 영어라는 이중언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인교회들은 2006년도부터 세계 선교 상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언어 분포를 보면 불어가 52.8%, 영어가 35.8%, 그리고 기타 언어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교사 파송 비율을 보면 영어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2.5%의 선교사들이 영어권에 가서 사역하고 있음에 비해 불어권에는 7%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불어권 아프리카 11개국은 인구의 90%가 모슬렘인 나라들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인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몬트리올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신이 몬트리올에 이민 오게 된 이유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몬트리올은 여러 곳을 향하여 선교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든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만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교 전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교지와 선교사 그리고 한인교회를 연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2008년 10월 제 1차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대회에 11개국에서 온 45명의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동휘 목사(전 주 안디옥교회 원로, 바울선교회 대표이사), 조일래 목사(한국 수정교회 담임),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담임)가 강사로 불같은 말씀을 토론했다. 특별히 저녁과 새벽 집회에서 선교사들의 살아 있는 보고를 들은 교인들은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대회 이후 현재까지 몬트리올의 13개 한인교회에 불어권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다. 6개 교회가 그 다음 해인 2009년 여름 단기선교팀을 불어권 아프리카로 파송했다. 이 파송 사역은 현재까지 매 여름마다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카메룬의 요카두마라는 도시에 선교센터를 세워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몇 나라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몬트리올 한인교회들은 지난 대회 이후 4년 만인 이번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다시 제2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벌써 불어권 아프리카 15개국에서 9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가하기로 되어있다. 이전 대회의 두 배나 되는 숫자이다. 김상복 목사(헷볼트 리티니신학대학원 총장, 할렘루야교회 원로)와 조운태 목사(홍콩 엘림교회)가 강사로 섬길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젊은이들 200명이 내년 불어권 아프리카에 단기선교로 건너가기를 소망한다. 또 하나의 선교 역사를 이 몬트리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북한 선교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2년 9월 북한선교 기도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북한선교 기도편지를 몇 달 동안 보내지 못함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난 몇 달 동안 시카고지역의 북한선교 관련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개인적으로 담임목회를 시작하여 섬기기에 시간이 어려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여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몇 가지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족교회와 협력사역

구한말 만주지역에 강제 또는 자발적 이주를 통해 중국에 정착하여 살았던 조선족 분들은 우리 한민족의 초창기 중국 이민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독립을 위해 한반도와 인접한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지역에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타국으로 장단기 이주를 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한국 체류 조선족은 29만7천명이고, 조선족 결혼이민자는 2만9천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시카고의 조선족 인원은 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카고 조선족교회는 몇 년 전 조선족 3세이면서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조광철 전도사님을 통해 개척되었습니다. 조광철 전도사님은 한인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분이지만, 미국에 밀려들어오는 조선족 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가정에 개척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주어 지원과 협조 속에서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0여명의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며 자립이 안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올 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을 가진 시카고베레렌교회의 사역적 지원을 연결해서, 현재 함께 시카고 조선족 커뮤니티에 사역을 더욱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조선족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조선족교회는 북한선교에 있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너무나 귀하고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잘못된 분들이 이미지를 흐려놓았지만 많은 조선족 교회들과 성도들은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탈북 동포들을 섬겨왔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대상은 조선족입니다.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유사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주 지역에 탈북민들이 아직도 대부분 한인교회 속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족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접촉점이 된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족교회 조광철 전도사님과 비전을 나누고 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한인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조선족 사역과 탈북민 사역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개인과 교회는 저와 조광철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길 원하시는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한민족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만들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와 협력사역



지난여름 몇 달 동안 있었던 사역들 중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시카고 지역에서도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한국 ‘주빌리 코리아’ (<http://jubileeuni.com>)와 함께 연합하여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길 소원합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NIM이 주관했던 북한선교기도모임을 비롯해 여러 기도모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빌리기도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준비위원으로 명병현 목사님, 유원하 목사님, 서창권 목사님께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주빌리 기도회’로의 전환하는 그랜드 오픈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순실 집사 간증집회



탈북간호장교인 이순실 집사를 강사로 8/31/2012(금) 빌립보교회에서, 9/6/2012(목)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간증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순실 집사님은 여러 차례의 탈북과

북송 과정을 거치면서 고문을 당했고, 몽골을 통해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여군 간호장교로 복무했지만 제대 후 심각한 식량난과 개인적 고통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처럼 겪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현재는 안보강사로 많은 교회, 학교, 국회, 경찰서 등에서 강연하며, 또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단에 빼앗긴 딸에 대한 아픔, 그녀의 탈북으로 인해 추방당해서 고통 받고 있는 형제들, 술한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받고, 믿음의 남편과 시댁을 만나게 해주신 삶 등...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만들어주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첫째, 남북한 주변국들의 바른 지도력 교체와 한반도와 주변국의 지혜로운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과 미국에 대선이 곧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으로 지도력의 공식적 승계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들과 남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의 바른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에 국민들의 합의가 한민족의 바른 미래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모아져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북한 땅이 개방되어 암제와 굶주림이 끝이 나고, 생명의 복음과 양식들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불어 닥친 태풍, 홍수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제대로 된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탈북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탈북민 사역이 체계화되어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의 일군으로 훈련하는 사역들이 발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미국 내 탈북민들의 신앙과 생활정착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북한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째, 본격적인 북한선교와 통일시대를 위한 일군들과 자원들이 준비되고, 북한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연합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NIM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blessnk@hotmail.com

밥(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명쾌한성경해석패러다임!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장재일목사
504면 / 18,000원 (1~13권)
653면 / 25,000원 (14~26권)
신국립영양

복음서들이비록헐라아로기록되었지만전자와등장인물들은대부분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복음서를해석하기위해서는당시히브리인들의관점과사고방식을이해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 본서는성경시대역히브리인들의관점과사고방식을바탕으로바레복음술이아있게해석하고있다. 독자들에게탁월하고풍부한해석적안목을제공해줄것이다.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이스라엘입아카데미본격강의!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절기를잘알고싶다면그만큼부터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본서는성경에나타나있지않은절기의풍습, 이스라엘의기후, 농사적상황, 천천의제사의식들까지도발버튼한을토대로자세하게기술해놓았다. 성경의절기에대하여해결되지않은궁금증이있었다면이책에서시원하고명쾌한해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장재일 목사

- 유신신대학총장
- 예루살렘대학성경리더십학과교수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브교회집회목사
- 현한국이스라엘연구학회연구위원
- 현이스라엘입아카데미대표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 한글언어연구소 출판, 율리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ram.co.kr ● 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 106-3 ● 전화 02247-1104 ● 출판출판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9)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을 중 하나인 “예배중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두 번째 주제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Methods or Pathways of Christian Education in Worship)”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예배의 주된 기독교 교육 방법들에는 설교(Preach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sic), 그리고 “성례(Sacrament)”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고, 그 중 설교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설교는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서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익히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그 익히고 이해한 바가 예배자들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이끌고, 이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도록 충동하고 휘젓는 것이며, 그리하여 예배자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 주체인 “설교자”라는 화두를 던져 드렸습니다. 이에 오늘은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의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예배를 통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소개해 온 맥락에서 볼 때,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교육자”라 할 수 있습니다(Preachers as

설교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의식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그 옛날 선지자들이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심에 대한 소망을 함께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그 설교 안에 담보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도전적이며 어찌 보면 아픈 곳을 깊이 찌르는 예언자적 역할과 함께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예배자들의 삶과 그 존재 자체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돌보며,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혹은 목회적 역할”입니다. 이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영적 성숙을 저해하는 일련의 방해요소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영적 파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겹기만 한 듯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종국에는 승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설교자는 사도적 역할을 감

선지자적 메시지 선포 속 목회적 역할도 감당 가르치는 대로 실제 삶 모습 속에 담보해내야

Educators or Teachers). 이는 설교자가 예배 안에서 수행하는 일들의 본질적 성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과 행사, 그리고 그것들이 예배자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해석하여 이를 예배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삶의 변화를 추동하는 영감을 주는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을 통해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교육자로서 섬기는 설교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바, “선지자적 역할(Prophetic), 제사장적 역할(Priestly), 그리고 사도적 역할(Apostolic)이 그것입니다(이는 일전에도 소개드린 바 있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배를 통한 교육”의 전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앤 윈벌리(Anne Wimberly)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2004년에 발표한 책 “신앙과 소망을 양육하기(Nurturing Faith and Hope)”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교육을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죄악에 대해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교자들은 죄악과 혼돈의 삶의 여정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 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에도 자각과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줄 아는 정의를 향한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전하고 가르치는 바를 그 실제 삶의 모습 속에 담보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란 쉬운 말로 하면 제자이며, 제자란 본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마지막 역할은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것입니다. 설교자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할 때, 앞서의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인 선포가 더욱 더 진실하게 예배자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아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로서 더욱 더 폭발력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 비중이 크든 작든 모두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설교자”들로서 우리 한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역할들을 더욱 더 정확히 인지하고 내면화 한다면 보다 통전적인 교육을 위해 예배를 통한 교육에 보다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도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스스로를 세련시켜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 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마음을 지키라 (잠4:20-27) 찬484장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첫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므로 생명을 누리고 몸의 약함을 얻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마음을 통해 나타나기에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지만 마귀로 채워지면 어두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둘째,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악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24-27). 임

은 궤에서 멀리하고 입술은 사목에서 멀리하고 눈과 눈꺼풀은 바로 보며 발은 절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서 지혜의 문에서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착념하기위해 묵상하며 연구하고 수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갑시다.

화 음녀를 경계하라 (잠5:1-14) 찬189장

여기 “음녀”란 남녀 간에 생긴 간음자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유혹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왜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첫째, 유혹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기름처럼 매력을 끄나 마침내 썩고 칼 같이 사지와 음부로 떨어지게 하고(5)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6).

둘째,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7-14에 보면 존영,

수한, 재물, 수고, 그리고 육체에 아주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은혜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파를까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지혜로 통과하기 위하여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 공적 모임을 힘씁시다.

수 부부의 정절 (잠5:15-23) 찬288장

본문은 부부생활의 정절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이기 위해 음녀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부부의 정절을 지키므로(15-19) 이깁니다. 부부의 성적관계를 샘으로 비유해 “네 우물을 마시우며 네 도랑물을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며 네 샘을 복되게 하며 사람의 삶을 나 누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선행 양심으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창세전 경륜을 믿고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둘

째, 음녀유혹을 피함으로(20-23) 이깁니다. 음녀유혹의 특징은 혼계를 멸시하고 미련의 껍데기를 고집합니다(23). 소돔과 고모라의 룯의 가정이나 노아홍수심판 전 상황처럼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행 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전도며 선교입니다. 자극성 강한 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길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창39:7-10).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목 유혹에서의 자유 (잠7:13-27) 찬212장

또 음녀 유혹의 형태와 결과 그리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음녀의 유혹방법-말씀으로 시험한 마귀처럼 음녀는 경건의 모습을 띄고 유혹합니다. 14절에 서원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언적 암시를 제시하며(15) 잔치의 풍성함을 약속함으로 유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을 벗어나려면 참 경건의 맛을 알고 그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둘째,

넘어진 자의 결과-먼저 자살행위가 일어납니다. 소가 쇠사슬에 매여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기는 길-말씀을 잘 듣고 주의해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끝장이라는 의식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금 지혜의 외침 (잠8:1-21) 찬490장

왜 지혜의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까? 첫째, 지혜란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10-11).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비유한 것은 지혜의 가치성을 보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보화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지만 지혜는 현재와 내세에 항상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는 현인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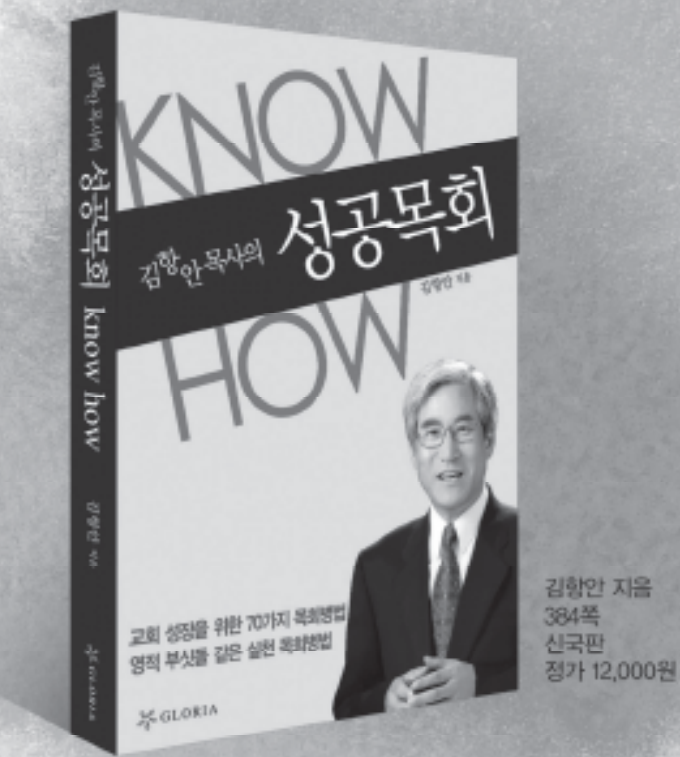
입니다(2-3).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짐은 그 속에 준비된 풍성함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받는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며 골방에서 속삭입니다. 여기에 회개와 믿음의 응답만하면 준비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수고를 드러 지혜인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복을 소유합니다.

토 창조자인 지혜 (잠8:22-36) 찬235장

본문은 지혜의 두 방면을 어떻게 의인화시켰습니까?(27) 첫째, 지혜를 선재자라고 했습니다(22-26). 요한복음 1:1-3절에 나온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자존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22)는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함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이며 순종함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입니다. 둘째, 지혜를 창조자라고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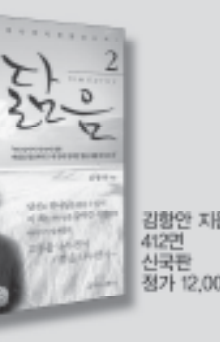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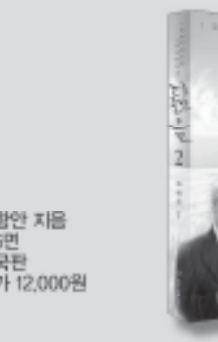
습니다(27-31). 여기 묘사된 지혜는 만물의 기초이며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가장 선하게 만드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됐다고 주장합니다(골1:15-17). 선지자요 창조자이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간직해 창조의 생애를 살아갑시다.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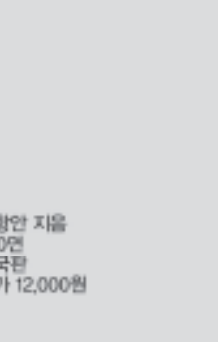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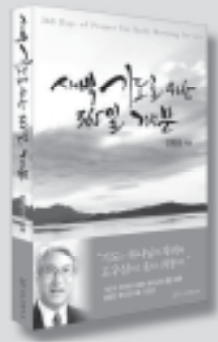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 항 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도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교 신학대학원, 미국 프리미어 신학대학원, 연원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홍익 신학, 서울 신학대 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리」, 「장기 예언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속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랜드」,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한글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담음」, 「1800~2000 복음적인 예배의 성로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5) 김재성 선교사 (필리핀)

필리핀 영혼위해 헌신할 동역자 기다린다

필리핀 선교 19년차를 맞는 김재성 선교사가 시카고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LA를 방문했다. 7일 오후 기자와 만난 김 선교사는 사역 19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도를 당부했다.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방황하던 청년

김 선교사는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때만 되면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청년 시절을 맞으며 고민에 빠졌다.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은 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질문을 세상 학문에서 찾은 수가 없었다. 더구나 전 자회사에 취직해 다니면서 업무의 어려움과 친구의 배신 등으로 정신적 육신적으로 힘들기만 했다. 그 와중에 장이 안 좋아 약은 달고 살았다. 그때 그는 후배의 권유를 받았다. "예수를 믿어보라"는...



김재성 선교사와 두란노신학원 학생들

갔다. 세브섬은 변질된 가톨릭으로 인해 우상이 성행했다. 아기 예수상을 만들어 구세주라고 했고 수호신을 각 가정과 관공서 학교 등에 세워 숭배했다. 마닐라 다음으로 큰 섬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선교사들도

리더 양육을 위해 두란노신학원 설립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신학을 바로 배운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두란노신학원연구원이

‘내가 가던 길이 지옥불로 향하는 것’ 깨닫고 선교사 서원 19년 동안 도시와 섬, 지방에 17교회와 신학교까지 설립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후배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찾게 됐다. 교회 출석 첫날, 교회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에 압도되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죄인임이 깨달아졌다. 나를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임이 느껴지는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지옥불로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뜨거움이 솟아올랐다. “이 사실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겠다. 선교사! 선교사가 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그 시절에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새벽 4시면 일어나 안양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 손에 인생을 올려놓고 함께 헌신할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응답돼 그 교회 반주하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게 됐고 지금까지 최고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필리핀 세브섬 주위에 17개 교회개척

7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된 필리핀, 마닐라에서 2년 동안 언어와 문화훈련을 받고 세브섬으로 들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동지를 마련한 김 선교사가 처음 시작한 것은 빈민(도시)선교였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모두가 흔쾌히 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도가 무지 쉽게 생각했다. 첫 주일이 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기다렸지만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첫 예배를 가족들만 모여 드려야 했다.

김 선교사는 다음날 아침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지만 그들은 우상 버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을 가르치고 현지실정에 맞게 선교비가 모아지는 대로 직접 교회건축도 했다. 그런 세월이 19년이 되고 보니 이제 도시와 섬, 지방에 17개의 교회가 설립됐다.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김 선교사는 한없는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간혹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주위의 핍박을 못 이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혼을 보면 한없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지곤 했다고 회고한다.

▲연락처: Paulruth@hanmail.net (이성자 기자)

탐방: 뉴욕기독교부부합창단을 찾아서

“부부가 함께 찬양, 사랑의 하모니 만든다”

“합창에는 희생, 겸손,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마음이 있습니다. 합창에는 이웃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미덕이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합창에는 주어진 여건 속에 제자리를 충성스레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소유영 지휘자

오는 30일(주)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뉴욕기독교부부합창단(윈즈장로교회 지휘 소유영 집사)을 찾았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

문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 여성합창단이 찬조 출연하게 된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뉴욕기독교

뉴욕부부합창단은 ‘가정의 소중함’이 절실한 이 시대에 부부가 함께 모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정의 하나 됨’을 실천하고 있다.

“합창단이 1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10회 정기

연주회에 저희의 대학생 자녀들이

이 같이 출연해 연주를 했는데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부부합창단이지만 성인된 자녀들, 자녀들의 부부, 부부들의 부모님들이

찬양에는 희생, 겸손, 사랑...예수님의 참 마음이 있어 ‘가정의 소중함’ 절실한 시대에 ‘가정의 하나됨’ 실천

식’이란 제목을 붙여 ‘복음제시’를 목적으로 뒀다.

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소유영 집사(윈즈장로교회)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전도에 많은 공을 들인다”며 “이번에 저희 부부합창단도 찬양으로 전도의



뉴욕기독교부부합창단 단원들

대열에 동참하고자 전도폭발 훈련과 사영리를 토대로 5가지 주제 곧, ‘하나님의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진행방법은 나레이터를 통해 5가지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찬양을 듣게 된다.

소 집사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하나님(시22:3)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저희 뉴욕기독교부부합창단의 찬양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믿지 않으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모시고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찬양을 통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부부합창단은 ‘찬양선교’를 목적으로 2001년 8월에 창단됐다. 뉴욕 일원의 각 교회 지휘자, 솔리스트, 성가대원, 찬양 팀으로 헌신하고 있는 부부들이 모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며, 매년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그리고 각종 초청 연주회 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소 집사는 “지금까지는 불러주는 곳에만 찾아가서 찬양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원교회를 방문하거나 타 지역순회, 혹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연주하며 부부 및 가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모임으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꿈꿔봅니다”라고 합창단의 비전을 제시하며, 인근 뉴저지나 코네티컷에도 기독교부부합창단이 생겨 함께 동역하는 것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창단원은 모두 39명. 18 부부에 싱글이 3명 포함돼 있다. 교회도 다양해서 윈즈장로교회를 비롯해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교회, 필그림교회, 아름다운교회, 주나목교회, 빛과소금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윈즈중앙장로교회 등에서 지휘자, 솔리스트,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다.

단원 자격은 ‘찬양을 좋아하는 믿음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뉴욕교회(담임 김은철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연락처 : (917)318-7030 (유원정 기자)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 음악회

- 일시 : 2012년 10월 7일 (주일), 오후 6시
- 장소 : 주사랑선교교회 (17054 Bixby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714-0691(영육구원), 무료입장
- 출연팀 : 캘리포니아 메스터 코랄, LA 남성 선교합창단, 소노러스 싱어즈, 이화 보컬 앙상블, 예람 피아노 트리오, 바리톤 장상근

